

홍성문채

계 간

여름

홍성문화원

제22권 2호 통권 151호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발행일: 2003년 6월 (여름호)

·발행처: 홍성문화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 041)632-3613)

·인쇄처: 조양인쇄사 (☎ 041)632-2363)



▲ 홍주읍성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의 이모저모/편집부/3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 용봉산②/조원찬/8

특별기고

- 결성읍성곽고찰/황성창/30

홍주마당

-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상황/김정명/38

천안공원묘원 앞에서



김태환 시인

길은 외줄기
북망산 기는 길
꽃상여 치러놓고
기디리는 곳

비 내리는 계절의
광덕 삼거리
신덕리 표정은
새악시 얼굴

대지연 속에서의
우리 삶은
부처님 손비닥의
손오공 같은 것

고향 사람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기슭에
정만 남있네

시인이 있을 때는
때때로
성지(聖地)를 지날 때는
언제나
공원묘원 앞에서 서서
합장하며
님들의 극락왕생 기원한다
휴리안(休里安) 속에 잠드소서
기원한다



홍성문차

2003/여름

계간/팔지 않는 책

- 2 우리의 다짐 | 인간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살자 | 편집부
- 3 문화원 소식 | 문화행사의 이모저모 | 편집부
- 5 홍성의 마을제 【洞祭】 ⑩ | 당제
- 갈산면 오두리 원오두 마을 - | 김정현
- 8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④ | 용봉산② | 조원찬
- 13 홍주의 얼을 찾아서 | 홍주목사 이정제(李廷濟) | 배동순
- 16 우리 문화 길잡이 | 우리의 전통한옥 | 김경식
- 18 내포제 시조를 따라서③ | 내포제 시조 | 박병규
- 20 우리고장의 명산을 찾아(3) | 봉수산 임존성 | 정태봉
- 25 건강 | 살구씨! 아 시름해! | 김용신
- 26 백두산기행③ | 백두산을 다녀와서 | 최규원
- 28 담안에서 띄우는 편지 | 긴 겨울을 보내며 | 고광철
- 30 특별기고 | 결성읍성곽고찰(結城邑城郭考察) | 황성창
- 3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 | 편집부
- 주부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스물 한가지① -
- 37 홍주마당
매미 | 김서한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상황 | 김정명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 구명희
큰 땅 덩어리,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① | 정명순
- 46 알아보는 생활상식 | 생활의 지혜 | 편집부
- 47 편집후기 | 표지사진 작가소개 | 편집부
- 48 회원모집 안내 | 편집부

홍성문화원 발행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발행인 이하영
편집인 정재범

2003년 6월
통권 151호
1989년 11월 23일 등록

전화)041-632-3613
634-9659
인쇄처 · 조양인쇄사

계	사무국장	홍성문화원장	편집부	결재
표지사진	작가소개	편집부		
접수일자	2003. 9. 8			
접수번호				

인간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살자

인간이 다른 동물과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이 강한 자는 실망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는다. 이성은 사리를 분석해 낼 수 있고,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깊이 생각할 줄 알고, 힘든 일들을 기억해 내고, 앞일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성의 원천은 뇌의 작동과정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뇌는 무게가 1300g~1450g인데, 이것은 세포수로 보면 110억개에서 130억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들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기구와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내며, 보다더 편리한 것들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뇌의 발달은 거의 무한대 한 것이다. 우리가 천재로 일컫는 아인슈타인 박사도 그의 뇌의 40%이내로만 활용되었다고 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성장과 동시에 뇌의 성숙도 함께 되는 것으로 믿었으나, 사실은 뇌는 양적 성숙이 아니고 질적 성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체는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그 작은 뇌의 활동으로 만물의 영장이란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엄청난 힘의 근원이요, 무한정하리만큼의 능력을 지닌 신비로운 인간의 역량을 지니게 된 것 또한 인간에게만 수여된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을 통해 사고할 수 있고, 냉철한 양심을 지닐 수 있고, 창조하고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성적 판단 기준이 잘못 이루어지면 인간 삶의 부조리한 형태를 지닐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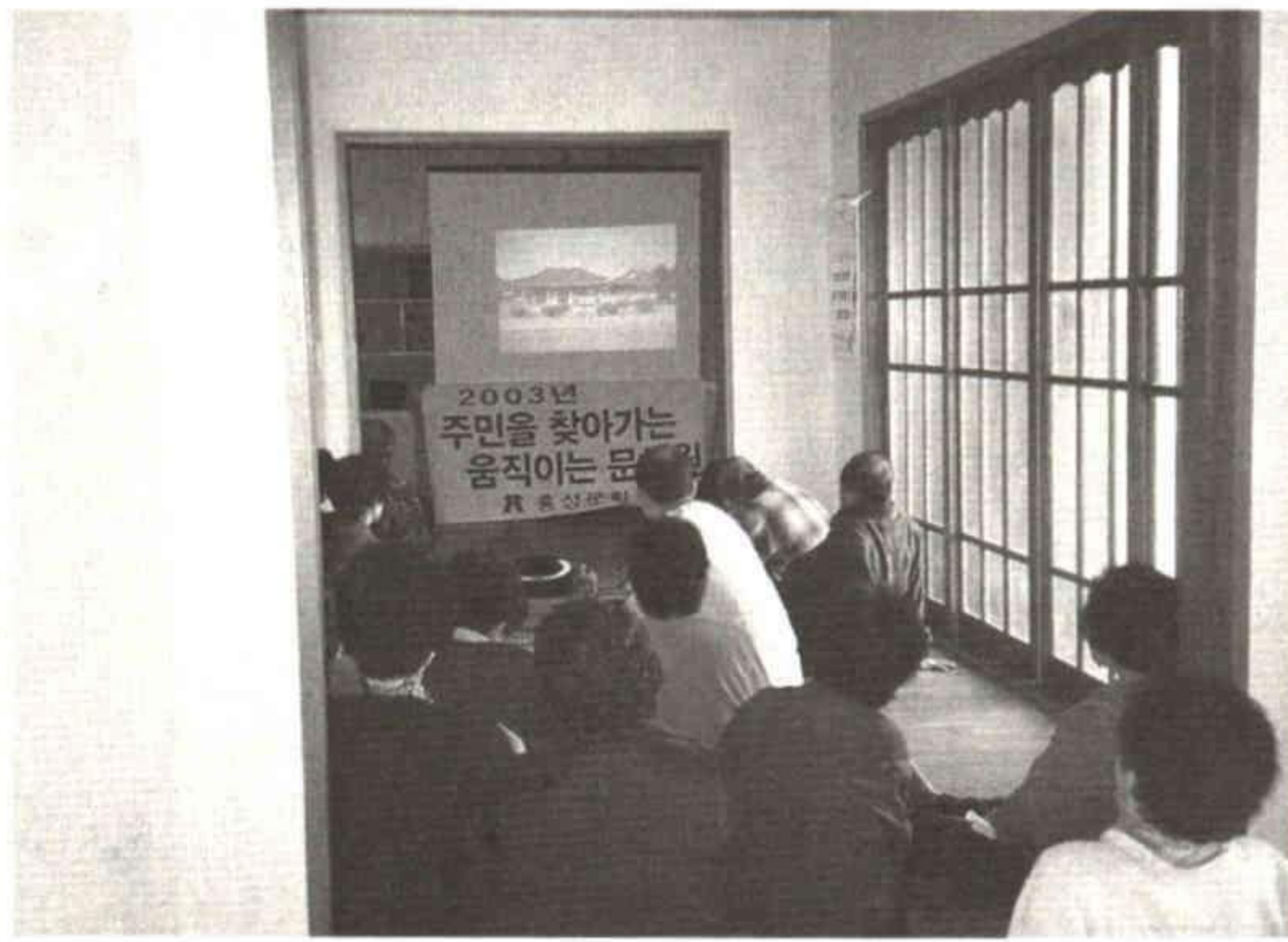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신문방송에 지도층

의 사람들까지 사회적 부조리 상태에 물들어 비판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성적 비판 다음에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시 이성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성은 자기 만능으로 믿을 때는 부조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지적 이성에 따른 지식만이 아니라 폭 넓은 예술적 심상과 도덕적 규범을 지녀야 하며, 인지적 지식에서도 진수는 박식함이 아니고 지식의 생산능력과 활용능력의 뿌리인 사고력, 창조력, 상상력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하는 사랑의 감정 속에 이성의 아름다움이 충만해야 좋은 인간, 좋은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무엇이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사회는 편리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과 도덕적 규범을 못 익힌다면 그리 바람직한 사회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보다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이 충만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인간적 감수성이란 타인을 인정할 줄 아는 감정을 뜻한다. 남을 생각할 줄 알고, 남의 슬픔과 즐거움을 알 수 있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살기 좋은 사회라 칭할 수 있다. 살기 편한 사회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발전되어 갈 때, 인간의 행복을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적 감수성은 예술적 감각과 도덕적 심성이 기본이 되는 사회로 다 함께 노력하며 살아야 인간의 미래는 광명이 올 것이라 믿는다.◇

문화행사의 이모저모

| 편집부 |



가좌동 3구 슬라이드 상영 모습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

홍성군민들이 교통편이나 시간적 상황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문화유적들을 접할 기회가 적어 문화원에서는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을 생각해 냈다.

주민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문화원은 문화유적을 사진으로 찍은 후, 슬라이드로 만들어 상영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유적에 대한 슬라이드를 먼저 보고 난 후 직접 가서 본다면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3월 14일(금)에는 가좌동 마을회관, 6월 3일(화)에는 홍성노인복지회관에 찾아가 문화유적 슬라이드를 상영하였다.

모든 슬라이드 상영 후 주민들은 직접 찾아와줘서 문화유적에 대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고, 보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좋아하셨다. 앞으로도 홍성의 문화유적을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홍성문화원이 되도록 하겠다.

▷전통관례 및 계례◁

매년 돌아오는 성년의 날에 만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자각과 긍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어른 된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전통관례 및 계례의식을 5월 19일(월) 오전 11시 혜전대학 야외무대에서 행하였다.

성년의 날이 제정된 것은 1973년이다. 관례는



전통관례 및 계례 모습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하여 남자에게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는 것이고, 계례는 여자에게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주는 것이다.

성년의 날에 전통관례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기에 학생들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언제나 문화원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거리영화제를 5월 23일(금) 8시에 푸른섬터에서 열었다. 영화 상영 전 흥겨운 풍물과 잔잔한 트럼펫 공연, 영화 이해를 돕기 위한 ‘영화이야기’ 설명을 가졌다.

영화 “동승”은 산중의 오래된 절에 사는 14살의 어린 사미승 도념과 두 명의 스님 이야기다.



영화상영 모습

도념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사는데 서울에서 죽은 아들의 제를 지내기 위해 내려온 미망인은 이런 도념에게 애뜻한 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수양아들로 삼아 서울로 데려가려 하지만, 절 근처에서 뒷에 걸린 토끼가 발견되어 주지스님이 이를 도념에게 추궁한다. 이 일을 계기로 주지 스님은 미망인이 도념을 수양아들로 삼겠다는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미망인은 자주 찾아오겠다는 말만 도념에게 남긴 채 절을 떠난다. 도념은 그토록 바랬던 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홀로 절을 떠나게 된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있다.

잔잔한 음악과 영상이 화면에 비쳐지자, 가족들과 함께 온 주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에 고정되었다. 여기저기서 화면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고요한 침묵이 흐르기도 하였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은 주민들은 기뻐하며 발걸음을 돌렸다.

▷제1회 거리연극제 「꿈 여행」◁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오즈의 마법사’의 존재할 수 없을법한 친구들을 등장시킨 이 작품은 엘리스의 동화 같은 꿈을 통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새롭고 신기한 ‘이상한 나라’를 보여주고자 한 작품이다. 갇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누비며, 어린아이들과 주민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었다. 이 작품에는 엘리스와 버섯, 토끼, 양철나무꾼, 요정, 사자, 고양이, 허수아비, 트럼프왕, 마법사들이 출연, 청운대학교방송연기학과 학생들이 연기하였고, 이송, 배혜령 교수가 지도하였다.

주민들은 명랑한 음악소리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며, 관심 있게 연극을 바라보았다.◇



「꿈 여행」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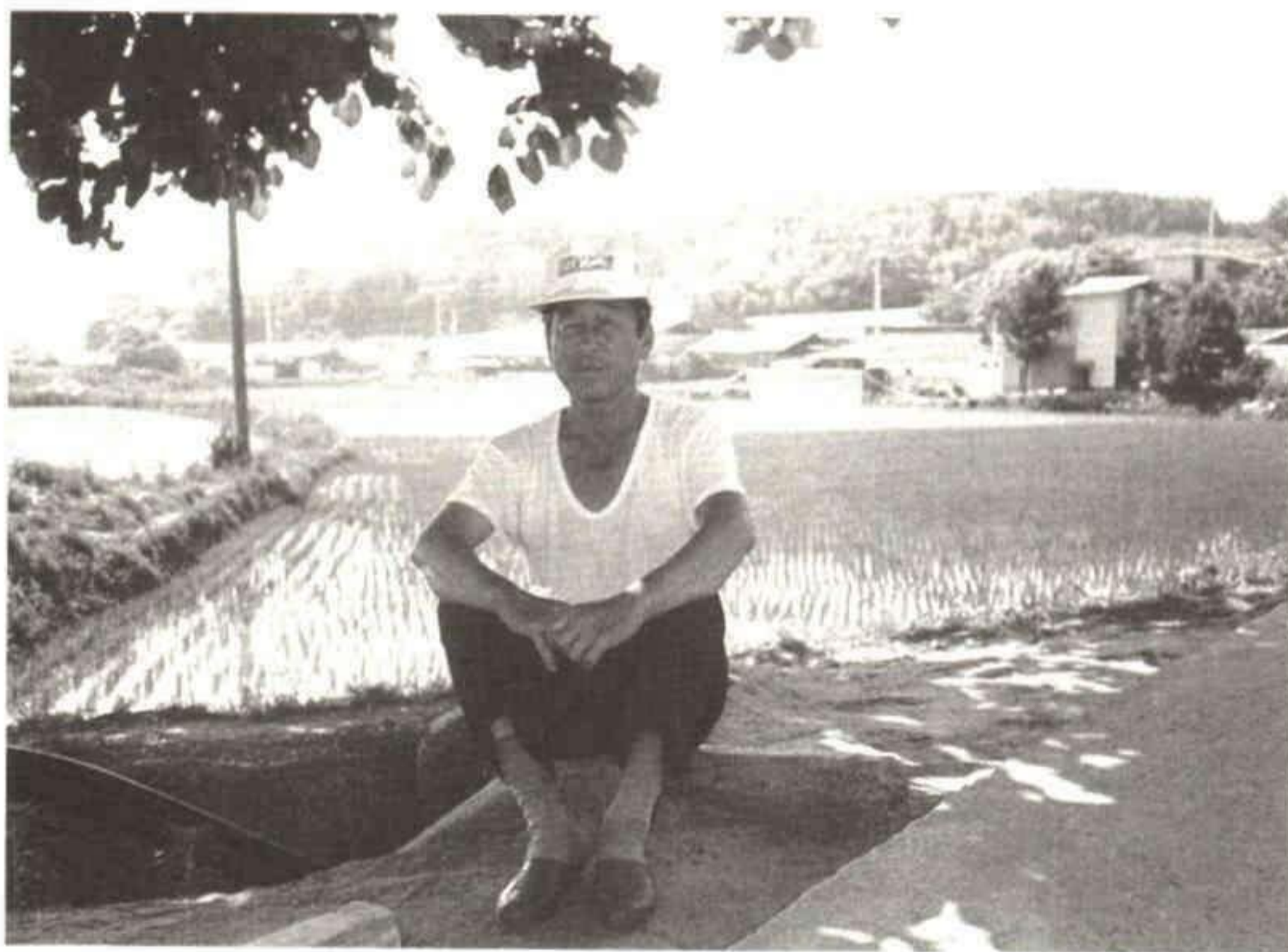


당 제

- 갈산면 오두리 원오두 마을 -



김정현 동화작가 · 광동초등학교 교사



제보자 김기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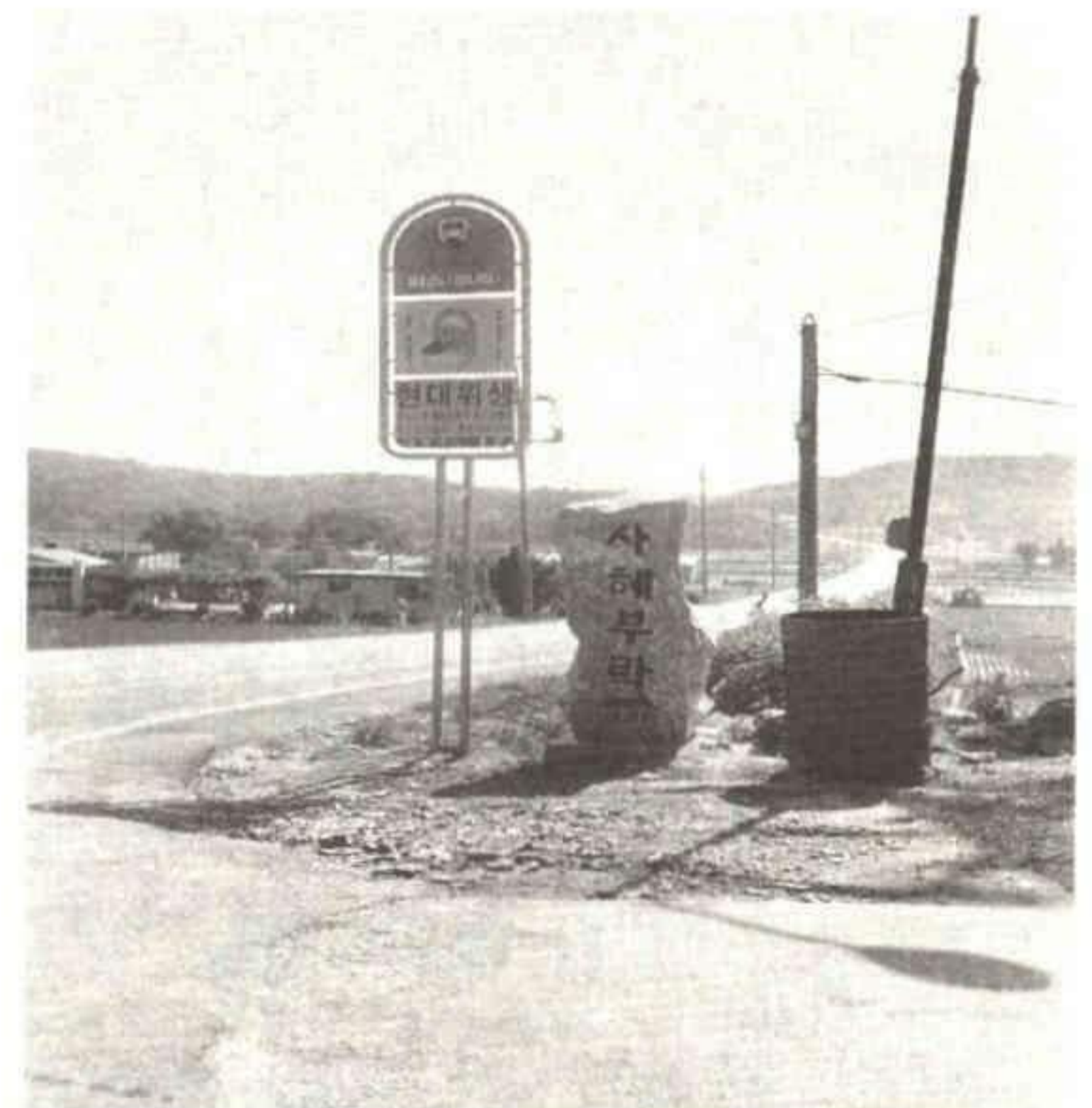
- 조사 일자 : 1999년 6월 12일
- 조사 장소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원오두마을
- 제보자 : 김기열(남, 67세, 고졸, 농업)
 - 사는 곳 :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원오두마을 362
 - 나서 자란 곳 : 사는 곳과 같음

김기열씨는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당제 지내는 것을 보며 자랐다. 어른이 된 후에는 당제에 제 관으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1. 명칭 : 당제
2. 성격 : 용왕신, 산신
- 3.(당집)의 위치 :

오두리는 갈산면 소재지에서 4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다. 갈산면 소재지에서 서부방면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삼불산 줄기가 이어져 있고 왼쪽으로는 와룡천이 흐르고 있다. 삼불산 줄기가 끝나

는 지점을 노루목고개라고 하는데, 이곳에 교회가 있다. 이 교회를 지나서 모퉁이를 돌아서면 바로 오른쪽으로 시멘트로 포



사해마을 입구

장한 농로가 있다. 입구에는 '사해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이 길이 오두리로 가는 입구이다. 입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삼거리가 나오고,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시멘트 길을 따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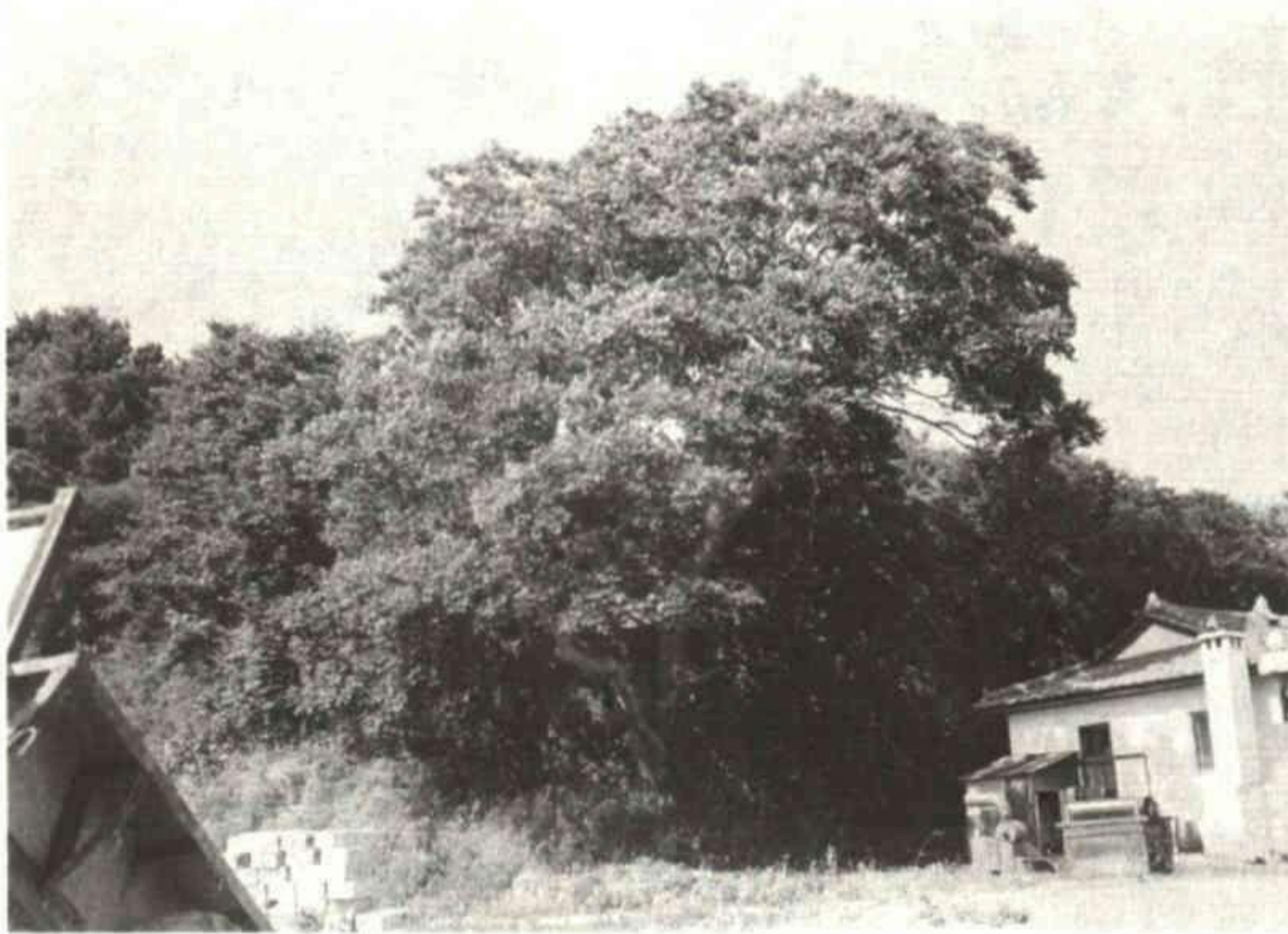
면 고개를 넘어서 커다란 동네가 보인다. 마을 입구 쪽으로는 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바다를 막아서 만들어 놓은 넓은 논이 있다. 또한 마을 끝으로는 현대건설에서 막은 서산AB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

당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서산 A지구의 농경지가 끝도 없이 건너다 보인다. 오두리 마을에는 수령이 약 500년 정도 된 팽나무가 있다. 팽나무가 있는 곳을 '원머리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옛날에는 당제를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뒷산 아카시아 숲 속에서 당제를 지내고 있다.

4. (당집)의 형태 :

옛날에는 이곳에 커다란 소나무가 있었다. 소나무가 없어지고 부터는 그 자리에 아카시아나무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당제를 지내는 곳에는 주변에 아카시아 숲이 둘러있고, 그 가운데 고목이 된 아카시아나무



오두리 당나무

아래에서 당제를 지낸다. 당제를 지낼 때는 아카시아나무 앞에 임시로 움막을 짓고 지낸다.

5. 제의 목적 :

옛날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풍어와 함께 바다에서의 무사고를 위해 지냈었다. 그러

나 지금은 마을의 번영과 주민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지낸다.

6. 제일 :

옛날에 원머리당에서 지낼 때는 5월 14일에 지냈다. 그러다가 마을 뒷산으로 옮겨서 당제를 지내면서부터는 설달그믐날로 옮겨서 지냈다. 지금도 설달 그믐날 지낸다.

7. 제의 주관자 :

제관이 주관하여 지낸다. 제관은 일주일 전에 생기복덕이 닿는 사람으로 2명을 선출한다. 옛날에는 무당도 참여하여 축원을 했으나, 요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축을 읽지 않는 관계로 축관은 선출하지 않는다.

8. 금기 :

제관으로 선출되면 자기 집에서 나와 일주일 동안 따로 기거하면서 하루에 찬물로 두 번씩 목욕재계를 한다. 제를 지내는 당일에는 세 번 목욕한다. 당제 기간동안에 마을에 임신부 등이 있으면 다른 마을로 대피를 시킨다. 초상이 나면 당제를 다음으로 연기하여 지낸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금기사항들이 완화되어서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9. 제물과 제의 절차 :

옛날에는 조기, 미역, 메, 밤, 대추, 꽃감 등을 준비했다. 요즘에는 간단하게 김과 조기만 준비한다.

옛날에 지냈던 당제는 배를 소유한 선주들이 오폭기와 제물을 준비해서 당산에 올라가 지냈다. 무당이 축원을 하고 모든 제의가 끝나면 풍물을 치며 내려와서 깃대를 배에 꽂아 놓고 개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사를 없앨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제를 지내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인별로 배에서 제사를 지냈다.

당제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선주들 중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는 제의로 변했다. 당제를 지내는 날짜와 장소도 바뀌었다.

옛날에는 제관으로 뽑힌 사람 두 명이 선달그믐날부터 일주일동안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는 장소는 마을에서 부정이 없고 정결한 사람 집을 빌어서,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를 하고 기도를 했다. 일주일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당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선달그믐날 기도를 하러 들어가서 새벽에 지내고 내려온다.

기도를 하는 장소도 옛날에는 남의 집을 빌어서 일주일동안 기도했지만, 요즘은 마을회관에서 하룻밤을 기도한 다음에 새벽에 올라가서 당제를 지내고 내려온다. 옛날에는 당제를 지낸 다음에 마을로 들어오는 세 곳에서 거리제를 지냈다. 그러나 요즘은 거리제도 지내지 않고 있다.

10. 제의 비용과 결산 :

옛날에는 선주들 중심으로 제의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다가 걸립에 의하여 비용을 충당했

다. 요즘은 마을 기금으로 충당한다. 결산은 마을 연말결산에서 한다.

11. 마을사람들의 신앙 태도 :

옛날의 당제는 사방에서 구경꾼들도 모여들고 마을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간소하게 제를 지내고 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행사를 없앨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제를 지내야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12. 유래 및 전설 :

옛날에는 당산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마을 당산에서 건너다보면 멀리 간월도가 건너다 보인다. 당산과 관련하여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다. 이곳 당산에 살던 커다란 구렁이가 용이 되기를 꿈꿨다고 한다. 그러나 구렁이는 용이 될 수가 없어서 바닷물을 가르고 멀리 간월도로 건너갔다고 한다. 구렁이가 바다를 건너갈 때는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은 구렁이가 건너갔다는 바다가 육지로 변해서 모내기한 벼들이 파란 들판을 이루고 있다.◇

용봉산②



조원찬 결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우리가 살고있는 홍성, 우리는 홍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홍성을 모른다면 어느 누가 홍성을 알아줄까? 마음이 아픈 일이다. 홍성에는 선사시대 이래 무수히 많은 유적·유물이 남아 있다. 이것은 그저 역사적인 가치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혜의 관광 자원이며, 공해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늘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모른다. 그래서일까? 우리가 사는 곳도 잘 모르면서 여행하면 먼 곳, 가보지 못한 곳부터 찾는다. 이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을 홍성에 오도록 하면 어떨까?>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홍성의 용봉산에 대하여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용봉산¹⁾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용봉산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불교 유적·관방 유적·기타 유적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현장 답사에 편리하도록 권역별로 묶으면 용봉사 권역, 빈절골 절터 권역, 미륵불 권역, 천승골 절터 권역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용봉사 권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불교 유적의 보물창고 '용봉사'

용봉사 권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불교유산이 남아있다. 용봉사와 옛 용봉사터, 용봉사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등이 지금의 용봉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용봉사 진입로의 남쪽에 자리한 가마밭골 및 용방치기에도 옛 절터가 남아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용봉사는 홍성군 흥북면과 예산군 덕산면의 면계에 이어지는 용봉산 가운데 흥북면 상하리 용방치기

1) 층층의 기암절벽이 금강산과 비슷하다 하여 홍주의 소금강(小金剛)으로 불리우는 용봉산. 고려시대에는 북산(北山), 조선시대에는 팔봉산(八峰山)이라 불리웠지만, 일제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지던 1925년 이전의 어느 날 갑자기 한 몸·한 줄기, 기암괴석(奇巖怪石) 자랑하던 팔봉산은 억지로 허리가 잘린 채 두 개의 이름이 붙여졌다. 홍성의 용봉산과 예산의 수암산.

마을의 북쪽 계곡 상단부에 위치한다. 현재의 용봉사는 본래의 위치에서 동쪽 아래로 이전되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평양 조씨 일문(一門)이 옛 용봉사 절터에 묘를 쓰기 위하여 본래의 절을 허물면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평양 조씨의 묘비명으로 보아 현재 용봉사의 창건 연대는 광무 10년(1906) 전후로 추정된다.



용봉사 전경

현 용봉사의 가람 배치를 살펴보면, 기암 절벽 사이에 동남쪽으로 흘러내

린 계곡의 평평한 지역에 전체 규모 정면 100여m, 측면 60여m 넓이에 3단의 대지를 조성하고 대웅전 및 요사를 축조하였다. 3단 가운데 맨 윗단은 4m 정도의 축대를 쌓아 높은 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60cm 정도의 기단을 만든 다음 남향한 대웅전을 지었다. 축대 및 기단에 사용된 석재는 대부분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이 많다. 대웅전은 정·측면 3칸으로 주심포식(柱心包式)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가운데 단에는 동쪽으로 치우쳐 요사(寮舍)가 있고, 서쪽으로는 우물이 위치하는데 요사는 근래에 다시 지었다. 한편 가운데 단의 중앙에는 옛 절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탑의 옥신석(屋身石)이 2개 있으며, 우물의 천정 위에는 목이 잘려 새로이 붙인 약사여래좌상이 1구(軀) 있다. 끝으로 아랫단에는 평탄 대지와 구분하여 1단의 축대를 쌓고, 그 위에 옛 절터에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石槽), 돌절구와 부도 등을 놓았다. 절의 입구에는 서쪽 바위면에 남쪽을 향한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이 있으며, 절의 북쪽으로는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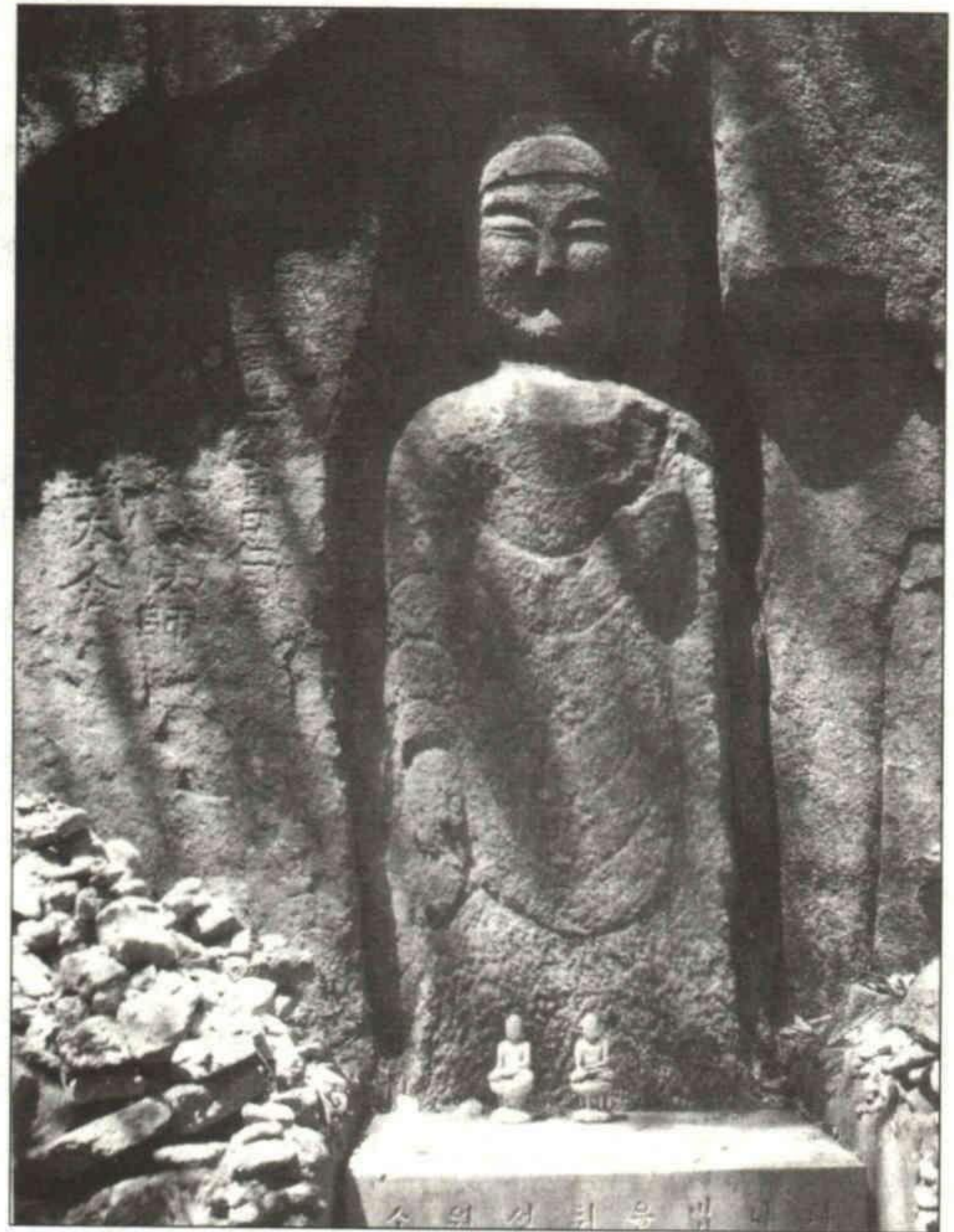
한편 옛 용봉사터는 현재의 용봉사에서 바로 서쪽에 인접한 대지 위에 위치한다. 능선상에 정남향으로 조성된 옛 용봉사지는 동서 장축 약 40m, 남북 약 30m의 규모이다. 현재 절터의 중심부에는 평양조씨의 무덤이 조성되어, 묘비명으로 미루어 보아 본래의 용봉사는 광무 10년(1906) 이전에 폐사되었고 바로 밑으로 이전되었다. 용봉사에 대해서는 《여지도서 輿地圖書》 홍주목 사찰조에, “龍鳳寺在八峯山”(용봉사는 팔봉산에 있다)이란 기록이 있어 사찰의 연혁을 짐작케 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절터에서 다수 발견되는 기와편으로는 가는 어골문(魚骨文) 및 변형 어골문이 시문된 것과 경질의 조선시대 기와편이 주류를 이룬다.

- 용봉사 주변에는 다양한 불교문화유산이 있다!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의 일주문과 사찰의 중간 지점에 자리한다. 지방 유형문화재 제 118호로 지정된 이 마애불은 거대한 바위면의 남면에 일정한 구획을 정한 다음 왼쪽에는 명문을 적고, 오른쪽으로 다시 구획을 정하여 남쪽을 향한 입상(立像 : 서있는 불상)의 불상을 돌을새김으로

조각하였다. 불상의 높이는 대략 230cm 정도이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 :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음)로 얼굴의 크기에 비하여 작는데, 육계(肉髻 : 머리 위에 솟은 부분)는 정수리 부분을 약간 솟은 듯이 조각하여 전체적으로 마치 팽이를 얹어놓은 것과 같다. 상호(相好 : 얼굴 모습)는 전체적으로 근엄한 듯 표현하였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다. 눈은 초리가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거의 “一”자(字) 형태로 가늘며, 코는 오뚝한 편이다. 입은 얼굴의 크기에 비하여 작고 얇으며, 턱은 살이 붙어 이중으로 겹쳤다. 귀는 눈썹의 끝 부분에서 목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크게 묘사하여 오히려 늘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 목은 신체에 비례하여 짧은 편이며, 삼도(三道 : 목에 표현한 세 개의 줄)의 표현은 바위면의 마모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다. 전체적으로 조각 솜씨의 미숙함에서 나타난 어설픈 느낌을 주기도 한다.



용봉사 마애여래입상

어깨는 아래로 처진 듯한 모습으로 둥글게 처리하였는데 그 위에 통견(通肩 : 법의를 입을 때 양 어깨를 모두 덮는 양식)의 법의(法衣)를 걸쳤다. 옷주름은 완만한 U 자형(字形)의 주름이 계단처럼 평행하도록 조각하였는데, 가슴 부분에서 무릎 아래까지 묘사되었다. 법의의 오른쪽 자락은 오른 팔을 휘감으면서 뒤로 넘겨졌고, 왼쪽의 자락은 왼 손에 걸쳐 무릎 아래까지 내려졌다.

수인(手印 : 부처의 손 모습)은 오른 팔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 팔은 들어 왼쪽의 가슴 높이까지 올렸는데, 현재 손목의 윗부분이 파손되어 알 수가 없다. 다만 바로 인접하여 용봉사의 윗쪽에 조각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과 빈절골 절터의 마애보살입상(磨崖菩薩立像)의 예와 비교한다면, 왼손의 모습은 시무외인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릎 아래에는 발가락의 표현이 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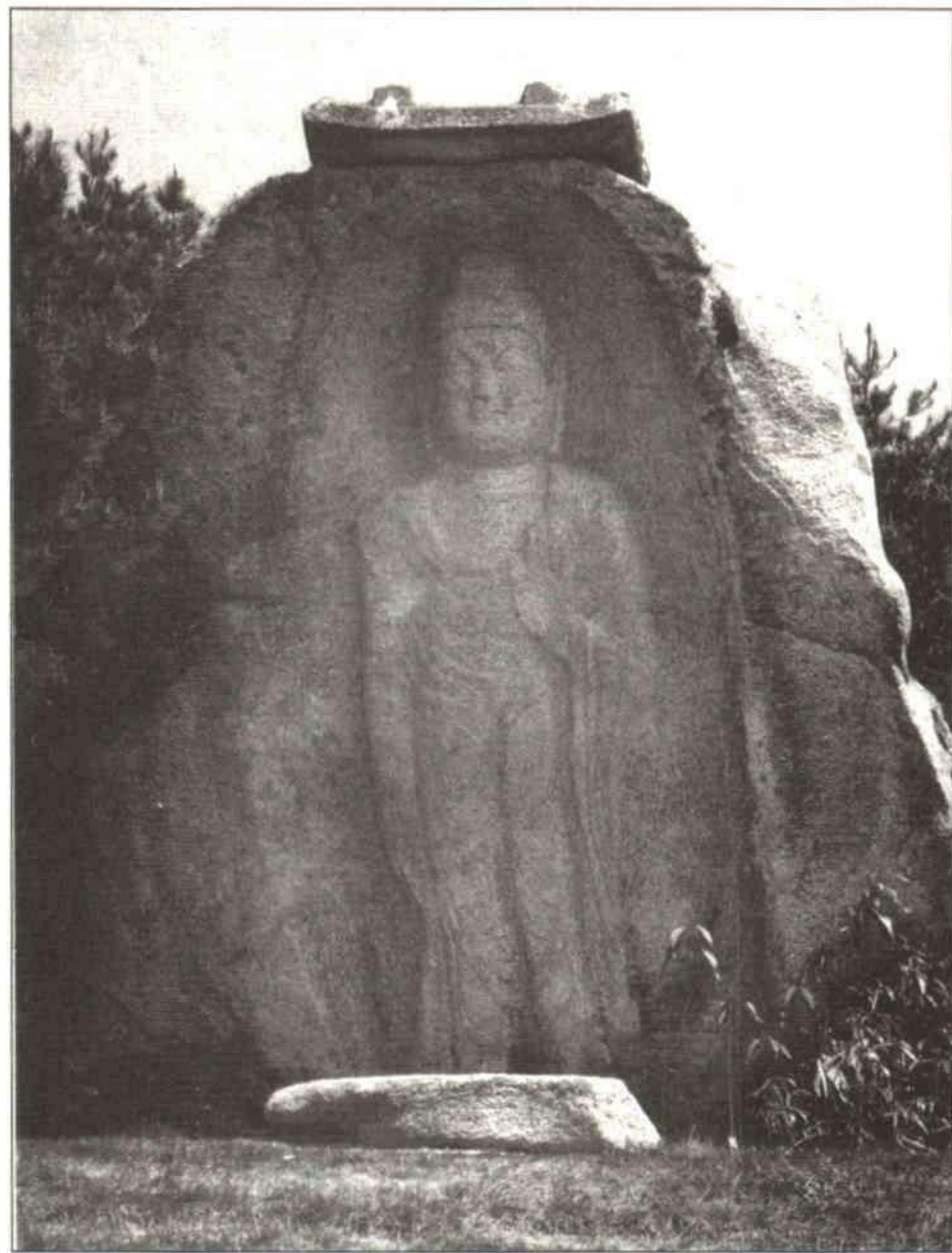
한편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에서는 광배의 표현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것은 가까이에 위치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磨崖如來立像)과 빈절골 절터의 마애보살입상(磨崖菩薩立像)의 예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은 조각 기법상 인근에 위치한 서산 마애삼존불상의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서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마애불의 오른 편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세로로 새겨진 일련의 명문(銘文)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貞(?)元十五年己卯四月日仁符
○佛願大伯士元烏法師
○○徒官人長珍大舍 』

앞의 내용에서 정원(貞元)이란 연호는 바위면의 마모로 인하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 용봉사 마애여래입상의 조성 연대는 799년경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서산의 마애삼존불상과 비교했을 때 긴장감과 탄력성이 떨어진 평면적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물 제355호로 지정된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의 북쪽 거의 정상부분에 위치한다. 산의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뻗다가 갑자기 우뚝 솟은 경사진 바위 면에 불감(佛龕 : 불상을 만들기 위해 판 넓은 홈)을 만들고 그 안에 불상을 돋을새김의 방법으로 조각하였는데 세부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불상의 머리는 소발(素髮 : 머리카락의 표현이 없는 형식)이며 육계(肉髻 : 머리 위에 혹처럼 솟은 부분, 부처의 덕이 너무 높아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함)는 높다. 얼굴 모습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원만하게 처리하면서도 통통하게 표현하였다. 백호(白毫 : 부처의 이마 가운데에 표현된 하얀 털, 불경에 의하면 부처의 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나는데 가장 강한 부분이 이마에서 나온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검은색의 점으로 표현되거나, 수정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매우 뚜렷하게 표현하였고, 눈썹은 반원형으로 인중 부분은 깊게 조각하고 끝으로 갈수록 얇게 표현하여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눈 역시 가늘게 뜬 눈이지만 초리를 살짝 내리고 있어 위엄보다는 인자함을 보여준다. 코와 입은 다른 표현에 비하여 작은 편인데, 코는 오뚝하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턱은 얼굴이 통통함을 보여주듯 살이 겹친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귀는 백호의 높이에서부터 거의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표현하였다. 목은 신체에 비하여 매우 짧지만 삼도(三道)의 표현은 뚜렷하다. 대체로 얼굴 모습은 부드럽고 인자한 부처님을 조각하고자 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돋을새김의 정도를 깊게 조각하고 있어 팽창된 양감을 느낄 수 있다.

신체는 얼굴에 비하여 다소 왜소한 느낌을 주지만 균형은 잘 잡혔다. 둥근 어깨에는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쳤는데, 얇게 묘사되면서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법의(法衣)의 옷주름을 살펴보면, 가슴에서 배까지는 완만한 U 자형으로 4조(條)의 굵은 선각을 한 다음 양 어깨에 걸쳤고, 배꼽 아래에서 다리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람이 불어 옷주름이 가랑이 사이로 약간 들어간 것처럼 표현한 2조의 얇은 음각선이 V 자형으로 양 팔에 이어졌다. 또한 허벅지 부분에 묘사된 2조의 의습선(衣褶線)은 좌우 대칭으로 \wedge 모양과 완만한 U 자형으로 처리되면서 역시 양 팔에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무릎 아래로는 법의의 끝단을 묘사한 2조의 의습선이 완만한 V 자형으로 양감있게 표현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 마애여래입상과 함께 수인(手印) 및 전체적인 특징에서
이후에 조성되는 홍성 지역의 불상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되었다. 한편 무릎 아래로는 법의의 표현 외에 5~6조(條)의 얇은 음각선이 좌우 대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군의(裙衣)의 의습선을 묘사한 것 같다. 왜냐하면 법의의 다른 의습선이 어깨 혹은 팔에 이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완만한 U 자형으로 처리된 무릎 아래의 의습선은 법의의 끝단 의습선에 의해 차단되어 단지 다리에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습선과는 별도로 배 부분의 의습선 바로 위에는 1조(條)의 굵은 선각(線刻)이 가해졌다.

얇은 법의 속에 표현된 다리는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진 모습으로 처리하였으며, 발은 대좌와 함께 별도의 직사각형 돌로 가공하였다. 대좌(臺座, 지름 120cm)는 연화(蓮花) 대좌로서 복연좌(覆蓮座)로 표현하였고, 두 발의 표현은 먼저 윗면을 반원형으로 넓게 구획을 정한 다음, 정면을 향해 가지런히 표현하였다. 두 발의 크기는 서로 비슷하며, 각각 5개의 발가락도 양각하였다.

수인(手印)은 시무외인 만을 결하고 있는데, 오른 팔은 자연스럽게 내려 다리에 붙이고, 왼팔은 들어 가슴 위에 올리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홍성 지역의 다른 불상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역만의 특징적인 조각 수법으로 이해된다.

광배(光背)는 거신광(擧身光 : 머리 부분과 몸에서 나오는 빛을 함께 표현한 것)의 형태로 3조(條)의 선각(線刻)으로 묘사하였는데, 두광(頭光)은 원형으로 육계 위에서 코 부분까지 약 2/3의 원을 구획하고, 이어서 그 아래로 발목까지는 타원형의 신광(身光)을 선각하였다. 한편 머리 위에는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사각형의 개석(蓋石 : 지붕)을 올려 놓고 있는데, 팔각 지붕형태로 앞면의 밑부분에는 연화문이 음각(陰刻)되어 있다.

요컨대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서산의 마애삼존불상의 형식적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규모가 커졌고, 상체 부분은 깊게 조각하면서도 하체 부분은 선각으로 얇게 조각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신경리 마애여래입상은 용봉사 마애여래입상과 함께 수인(手印) 및 전체적인 특징에서 이후에 조성되는 홍성 지역의 불상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흥주목사 이정제(李廷濟)



배동순 향토사학자

【아래의 내용은 증종실록에서 흥주목사 이정제에 관한 글을 채취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670(현종 11)~1737(영조 13).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부평(富平). 자는 중협(仲協), 호는 죽호(竹湖). 좌승지 세유(世維)의 아들이다. 1699년(숙종 25) 사마시를 거쳐 이듬해 춘당대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소론으로서 정언·지평·사간 등을 거치면서 이유(李濡)·김창집(金昌集) 등 노론계열의 중신을 탄핵하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1721년(경종 1) 충주목사를 거쳐 1723년 노론축출에 가담하였다가 1725년(영조 1) 노론의 집권으로 삭직되었다. 1728년 경기도관찰사에 임명되어 대사헌·형조판서·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약관의 나이로 경사(經史)에 통하였으며 40여년을 관직에 있으면서 오직 청렴함과 강직함으로써 왕을 보필하였다. 김일경(金一鏡)이 득세하자 그에게 많은 사대부가 아부하였으나 이를 경계하였다. 술을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으나 호조판서 재직 때에 비용을 절약하여 국고를 충실하게 하는 행정

적 수완을 보이기도 하였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다. 《참고문헌》 숙종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국조방목, 기록집.

14일(갑자)

봉조하(奉朝賀) 최규서(崔奎瑞)가 급변(急變)을 올리니, 임금이 영의정 이광조(李光佐)·좌의정 조태억(趙泰億)·이조 판서 이태좌(李台佐)·병조 판서 오명항(吳命恒)·호조 판서 권이진(權以鎭)·예조 판서 이집(李集)·형조 판서 서명균(徐命均)·좌참찬 김시환(金始煥)·판윤 김동필(金東弼)·이조 참판 조문명(趙文命)·호조 참판 윤순(尹淳)·총융사(總戎使) 김중기(金重器)·훈련대장(訓練大將) 이삼(李森)·호조 참의(戶曹參議) 송인명(宋寅明)·도승지(都承旨) 이정제(李廷濟)를 희정당(熙政堂)에서 인견하였다. 이광좌가 나와 말하기를,

“어젯밤 봉조하 최규서가 급히 달려 올라왔다.”는 보고를 듣고 그 까닭을 물었더니 답하기를, ‘이웃에 놀랍고 괴이한 일이 있어 상달(上達)

하고자 해서이다.'라고 하기에 한편으로는 다시 글로 묻고 한편으로는 여러 재상을 비국(備局)으로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심단(沈檀)을 판의금(判義禁)으로, 이정제(李廷濟)를 평안감사(平安監司)로, 이중술(李重述)을 승지(承旨)로, 윤회(尹會)를 집의(執義)로, 김상규(金尙奎)를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하였는데, 승지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대신(臺臣)을 산릉(山陵) 일 때문에 문비(問備)하는 것은 아마도 미안한 일인 듯 하니, 청컨대, 그 명을 환수(還收)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평안감사(平安監司) 이정제(李廷濟)가 명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러 번 엄한 전지(傳旨)를 내렸고, 심지어,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라는 전교(傳敎)까지 내리셔서 마침내 펄박하여 가게하고야 말았으니, 신(臣)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지적하여 의논했다는 말은 이미 논사(論思)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이정제가 사양하는 바는 곧 엄치를 중하게 여기는 뜻입니다.

정사효(鄭思孝)·이정제(李廷濟)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도승지(都承旨) 이정제(李廷濟)가 아뢰기를,

“평안병영(平安兵營)의 군제(軍制)가 극도로 괴란(乖亂)되었으니 수포(收布)를 감하여 보인(保人)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전마(戰馬)와 기계(器械)를 준비하게 하소서.”

정원(政院-우부승지(右副承旨) 정우주(鄭宇柱)와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정제이다.)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총재(冢宰)를 특별히 추고하라는 분부와 유신(儒臣)을 특별히 파직하라는 명을 도로 정침(停寢)하소서.”

이정제(李廷濟)를 도승지(都承旨)로, 김호(金

浩)를 장령(掌令)으로, 김동필(金東弼)을 한성 판윤(漢城判尹)으로 삼았다.

참찬관(參贊官) 송진명(宋眞明)이 말하기를,

“평소에 개강(開講)하는 시기를 당하여 옥당(玉堂)의 여러 신하들이 선영(先塋)을 성소(省掃)하는 일로 휴가(休暇)를 청하는 자가 많으니, 이후에는 관료(館僚)의 정사(呈辭)를 한때에 받아들이지 말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와 이슬이 이미 내렸으니, 어찌 선조(先祖)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봄을 만나 성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금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신이 근밀(近密)의 자리에 오래 모시고 있어 그윽히 우리 성상(聖上) 타고나신 효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온 우애(友愛)를 살펴보건대, 천고(千古)에 뛰어나셨으니,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동작(動作)이 효제(孝悌)의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었다. 비와 이슬이 이미 내렸다는 하교에서도 온 나라를 효도(孝道)로 다스리는 기록한 뜻을 볼 수 있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족하니, 아! 아름다운 일이다.”

대사간(大司諫) 이정제(李廷濟)가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

“민진원(閔鎭遠)을 원방에 찬배(竄配)하는 것은 특별히 말감(末減)한 것이니, 다시 전에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아! 선후(先后)의 동기간(同氣間)이 되는 친척은 참으로 불쌍하게 여길 만하나, 선조(先朝)에서 전해오는 토죄(討罪)의 법전(法典)은 홀로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原州)에서 서울의 거리는 2일의 노정(路程)이 되지 않습니다. 민진원이 바야흐로 여강(驪江)에 있는데, 한줄기 강물을 건너면 곧 원

제신(諸臣)들이 과연 어압(御押)이 지나갈 적에 경건한 자세를 어긴
허물이 있었으니, 책벌(責罰)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지경이니, 한줄기 강물을 사이에 두고 남
쪽과 북쪽이 문득 원찬(遠竄)이 된 것입니다. 곧
유사(攸司)로 하여금 다시 배소(配所)를 개정(改
定)하여 보내게 하소서. 해당 승지(承旨)가 구전
(口傳)으로 언지시 품한 것은 이미 구차한 데에
관계되나

대사간(大司諫) 이정제(李廷濟)가 상소하였는
데, 대략 이르기를,

“북자(北咨)가 또 이르러 그 추욕(醜辱)이 한
정 없습니다. 오랑캐의 패만(悖慢)함은 예로부터
성왕(聖王)도 모면하지 못한 바이니, 더욱 자강
(自強)의 방책에 힘쓰고 형정(刑政)을 밝히소서.
우리나라의 변방을 지키는 관원이 과연 책임자
를 얻어 정령(政令)이 엄명(嚴明)하다면, 저들이
어떻게 제멋대로 월경(越境)하여 심지어는 인명
(人命)을 살해할 리 있겠습니까? 그때의 도신(道
臣)과 범월 사건(犯越事件)이 있던 해당 지방관
은 경중(輕重)에 따라 감죄(勘罪)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도승지(都承旨) 이정제(李廷濟)가 말하기를,

“강계(江界)와 갑산(甲山)에는 월경(越境)을 범
하는 자가 매우 많아서 가끔 저들에게 피살(被
殺)되고 그 가족들이 밤을 틈타 강을 건너가 시
체(屍體)를 찾아오는 일이 있는데, 변장(邊將)과
수령(守令)은 혹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합니다.”

24일(을해) 이정제(李廷濟)를 대사간(大司諫)

으로, 이광보(李匡輔)를 수찬(修撰)으로, 박사수
(朴師洙)를 승지(承旨)로 삼았다.

5년 4월 13일

명하여 대축(大祝)을 파직시키고 주서(注書)·
중사(中使)를 추고하라는 명을 도로 정지시키게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이정제(李廷濟)가 소장
을 올렸는데, 대략 말하기를,

“근래 모든 관리들이 나태하여 조정의 위의
(威儀)가 엄숙하지 못하니, 실로 한심스러운 일
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바람에 나부끼는 휘장(揮
帳) 사이로 보았다는 전교와 중관(中官)에게 감
히 누구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분부는 어찌면 전
하의 실언(失言)이 여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아! 임금이 신하에 대해서는 진실로 은밀하게
동정(動靜)을 살펴 지나치게 독책하는 것은 불
가능한 일이며, 또 중관(中官)으로 하여금 규검(糾
檢)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제신
(諸臣)들이 과연 어압(御押)이 지나갈 적에 경건
한 자세를 어긴 허물이 있었으니, 책벌(責罰)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이 애석하
게 여기는 것은 왕언(王言)인 것이고 우려하는
것은 뒷날의 폐단인 것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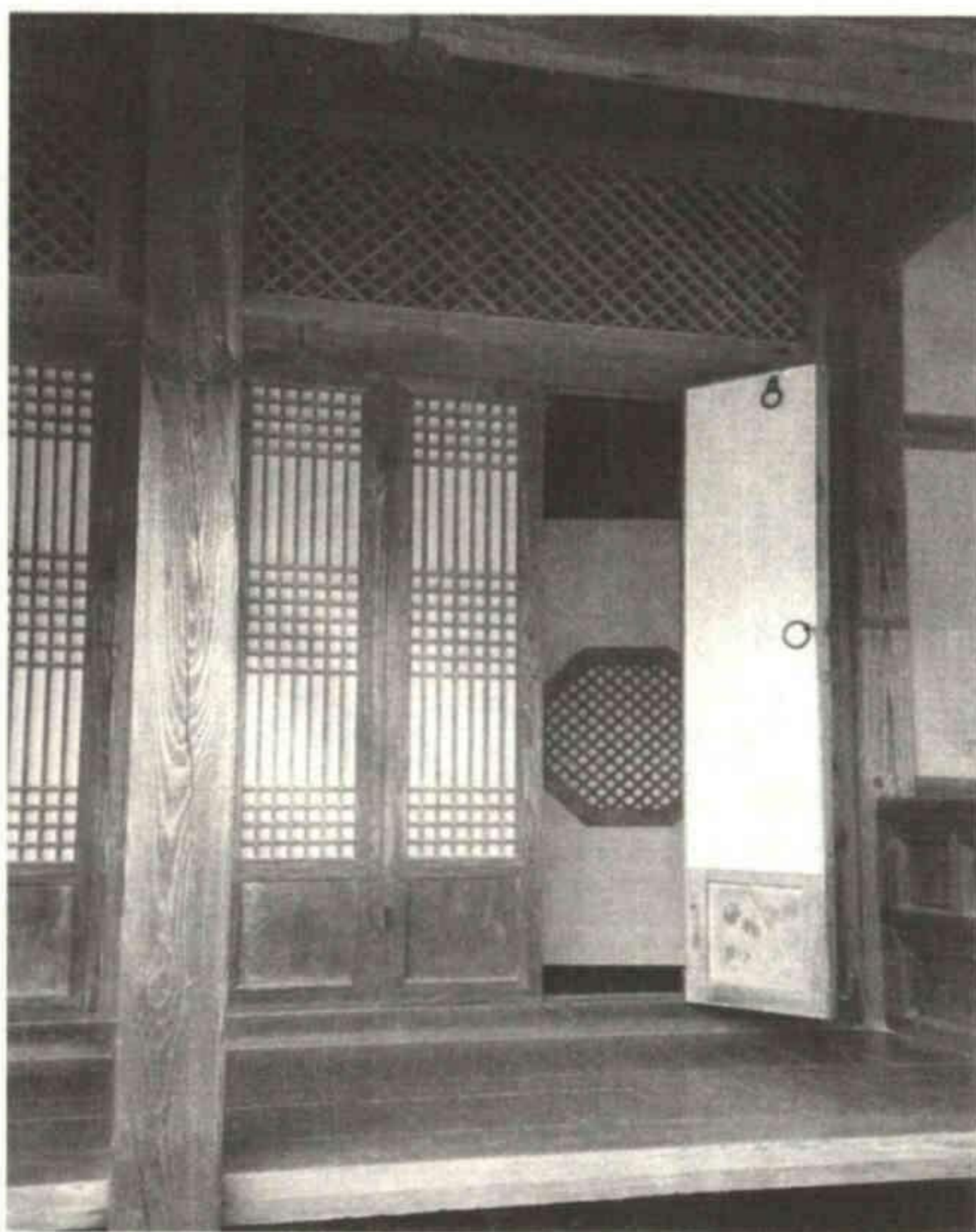
김경식 **홍부면 노은리**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이 무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축에 많은 신경을 써왔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름엔 퇴약별을 막기 위해 벗짚을 썰어 넣은 황토 흙을 개어 지붕 위에 올리고, 벗짚이나 기와로 지붕을 마감하고, 방안에서는 천장을 만들었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소재 중에서 열 전도율이 아주 작은 소재를 골라 여름을 에어컨이 없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다.

한옥의 구조는 사용공간에 따라 방, 부엌, 마루, 대청 등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방은 안주인이 주로 사용하는 안방과 그 집의 가장이 주로 사용하는 사랑방이 있고, 대갓집에는 대문간 옆에 별도의 행랑채가 있어 오가는 손님이 묵어 갈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숙박시설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절에는 행랑채의 역할은 따뜻한 인정을 나누며, 각 지방에서 오가는 손님을 통해 정보수집과 교환의 장소도 되었다.

유교의 영향으로 남녀 구분이 뚜렷했던 조선시대에 안방은 여자들이 주로 생활하며, 남편과 직계 아이들 이외에는 외간남자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장소였다. 대갓집에서는 집 자체가 구분되



균형과 조화가 있는 전통 한옥 '門'

어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집과 남자들이 사용하는 집이 구분되어 지어지기도 하였다. 우리고장에서는 장곡면 신성리 조용식씨 댁에서 그러한 구조를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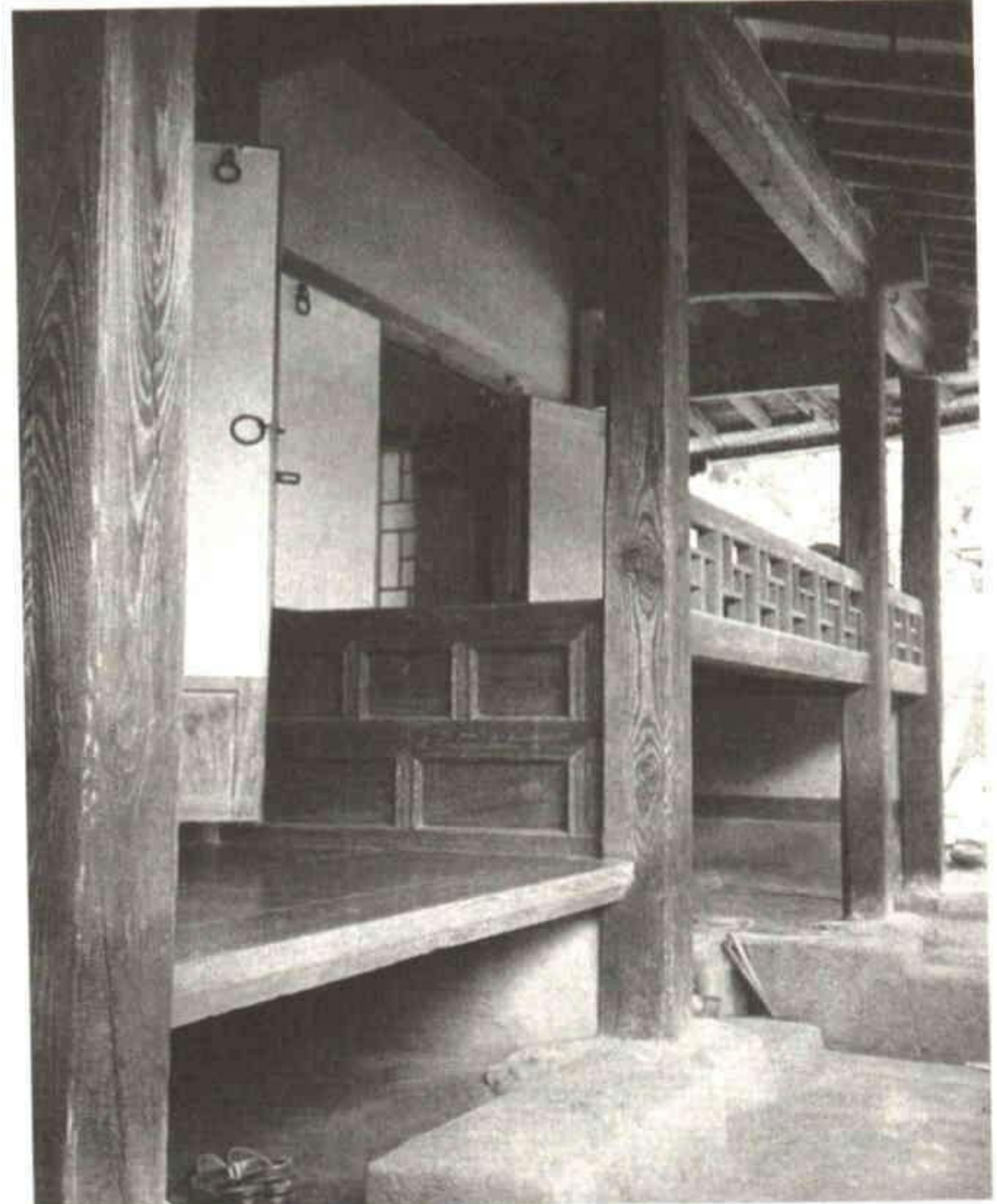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대청은 문을 모두 열어 놓고 앉아 있으면 시원하게 여름을 지낼 수 있는 곳이다. 대청 앞문의 문을 열어 접은 후, 들어올려 이 문을 뜯쇠에 걸어둔다. 온 천지가 한눈에 대청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게 꾸며져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대청의 바닥은 나무를 엇갈리게 꿰어 맞춘 우물마루로 물리적으로 튼튼하며, 시원함을 더해 준다. 우물마루는 하나씩 흠에 맞게 파서 맞추었기에 마루를 뜯어서 헝클어 놓으면 귀신도 못 맞춘다는 말이 있다. 튼튼함의 과학과 시원함의 환경이 함축되어 있는 대청에서 냉국수 한 그릇에

수박을 한 입 물으면 한여름의 무더위도 잠시 잊어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큰집 마루 한쪽 켠에는 누(樓)마루가 있다. 보통마루보다 두어 자 가량 높은 누마루는 한옥구조의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높이 앉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옛날 선비들이 누마루에 앉아 천지를 멀리 바라보며, 큰 이상의 꿈을 키워왔던 곳이기도 하다. 현대 건축물에서도 누마루 같이 높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한옥에서 문은 집전체를 균형과 조화롭게 만들어 준다. 큰집에서는 문을 덧문, 미닫이, 두껍닫이 등 세겹으로 단 경우도 있다. 덧문은 바깥쪽문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여닫이 형식이고, 가운데 미닫이는 창호지를 바르고 문살에 모양을 마음껏 낸 것이 많다. 여름에는 얇은 천을 발라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으며, 두껍닫이는 추운 겨울 외풍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설치했으며 그림이나 글씨를 붙여 전시용 벽면으로 요긴하게 쓰였다.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누마루

현대 건축물에서는 금속과 유리로 내부와 외부를 완벽하게 구분하였으나, 전통한옥에서는 문에 창호지를 바르고 안과 밖이 여유로움을 가지고 서로 기(氣)가 통할 수 있도록 나누었던 것이다. 창문 역시 앉아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편안한 높이로 정해지고, 여름철 통풍을 위해 갑사(甲紗)같은 천을 바르기도 했다. 선풍기, 에어컨이 없던 시절 그러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물에 배려를 했던 것이다.

전통한옥에는 마루 앞에 널찍한 마당이 펼쳐져 있다. 여름에 마당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기류가 발생하여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공기의 흐름이 발생되어 집 안쪽이 시원해지게 된다. 우리 전통 가옥의 앞마당에는 전통적으로 금기시 되어온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한가지가 마당 가운데 키가 크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 마당(口) 가운데 큰 나무(木)를 심으면 가난해진다고 한다. 괴로울 곤(困)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나, 참으로 과학적이다. 마당가운데 큰 나무가 서게 되면 그들이 지게 되고, 집안에 햇볕과 통풍이 안되어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쓰이게 되니 가난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좋은 기운(氣)을 나무에게 빼앗겨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게 된다. 마당이 넓은 집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넓을 수밖에 없다. 마음의 여유로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넓은 자연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좋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가옥은 그러한 면이 모두 고려된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연의 일부였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한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장점을 찾아 현대 건축에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내포제 시조



박병규 | 홍성군내포제시조보존통합시우회 회장

□ 보급 활성화 방안

1. 시조강습회

다행히 내포제시조의 정통 전승자(지방문화재)인 부여읍 거주 창암(蒼暗) 소동규옹이 당대 내포제의 거성 미당(美堂) 윤중선 선생 문하에 사사하여 정통 내포제의 맥락을 계승, 발전, 보급에 전력하여 무수한 후배를 배출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나 보다 젊은 시조인을 양성하고 내포제 시조의 저변확대를 위하는 보다 창의적인 보급 전략이 요망되어 이 문제에 착안했다.(한편, 본 연구자는 1994년 '백제 문화재 행사' 일환으로 전국 시조 경창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인연으로 연구)

그 창의적인 보급 전략의 하나가 곧 시조 강습회라 할 수 있다. 강습회를 실시하는 의도는 년 1회(7일간)의 무료 강습회(금년2회)를 할 수 있고,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창법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현재 대체적으로 주로 노인들의 전유 예술로 되다시피 한 시조인을 젊은(학생·청장년)층으로 활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각 군단위로 년 1회 정도의 경창대회가 실시되고 있는 바, 보다 알찬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도 보급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강습회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부여읍 소재 시조회관에서 년1회(7일간) 실시하였는데, 그 소요경비는 군 문화 진흥예산에서 지원 받았다.

원거리자는 숙식까지 제공하여 실시, 대략 200명 내외가 주로 내포제 창법을 강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현재2회) 참여 군이 수 개 군에 그쳤다. 그 대처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독지가의 후원을 얻어 연2회에 보다 광범위(전 도내, 군에서)한 참여를 유도하고, 열악한 군 분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 및 홍보활동으로 각 자치단체가 본 고장 시조인 내포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2. 시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함양

시조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어서 시조는 늙어서 한가한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계층이 부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습회에 참석한 이들이 시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젊은 청장년층이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각 군의 학교와 연계하여 특기적성교육에 시조부를 창설하는 일은

내포제 시조의 보급·발전을 위해 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시조는 3장 6구체의 틀 속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형태며, 이를 정해진 장단 속에 3음으로 배열하여 부르는 것이 시조창이다.

시조음악의 특징은 다이내믹(Dynamic)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으로는 극히 단순한 가락이고 템포가 느려 리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로 올려 떠는 소리·아래로 떠는 소리·제 음의 섬세한 요성이 지나면 실낱같은 여운을 남기는 그리고 또 다른 음에 닿아서는 새로운 꾸밈음에 의해 또 다시 전개되는 음과 음, 이러한 요소들이 시조의 멋을 더하게 된다.

3. 각 군 분회조직의 활약

도내 수 개군(주로 서부지역과 대전)외의 군 지부는 비조직 내지는 조직되어 있어도 부실분회가 많은 것이 현황이다.

부실분회 또는 비조직 분회는 주로 재정(회관과 일부 시설물)문제와 인적자원의 결핍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후원과 독지가의 도움이 요망된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 개 군에서는 연1회 경창대회(전국규모)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창대회가 더 발전하려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와 독지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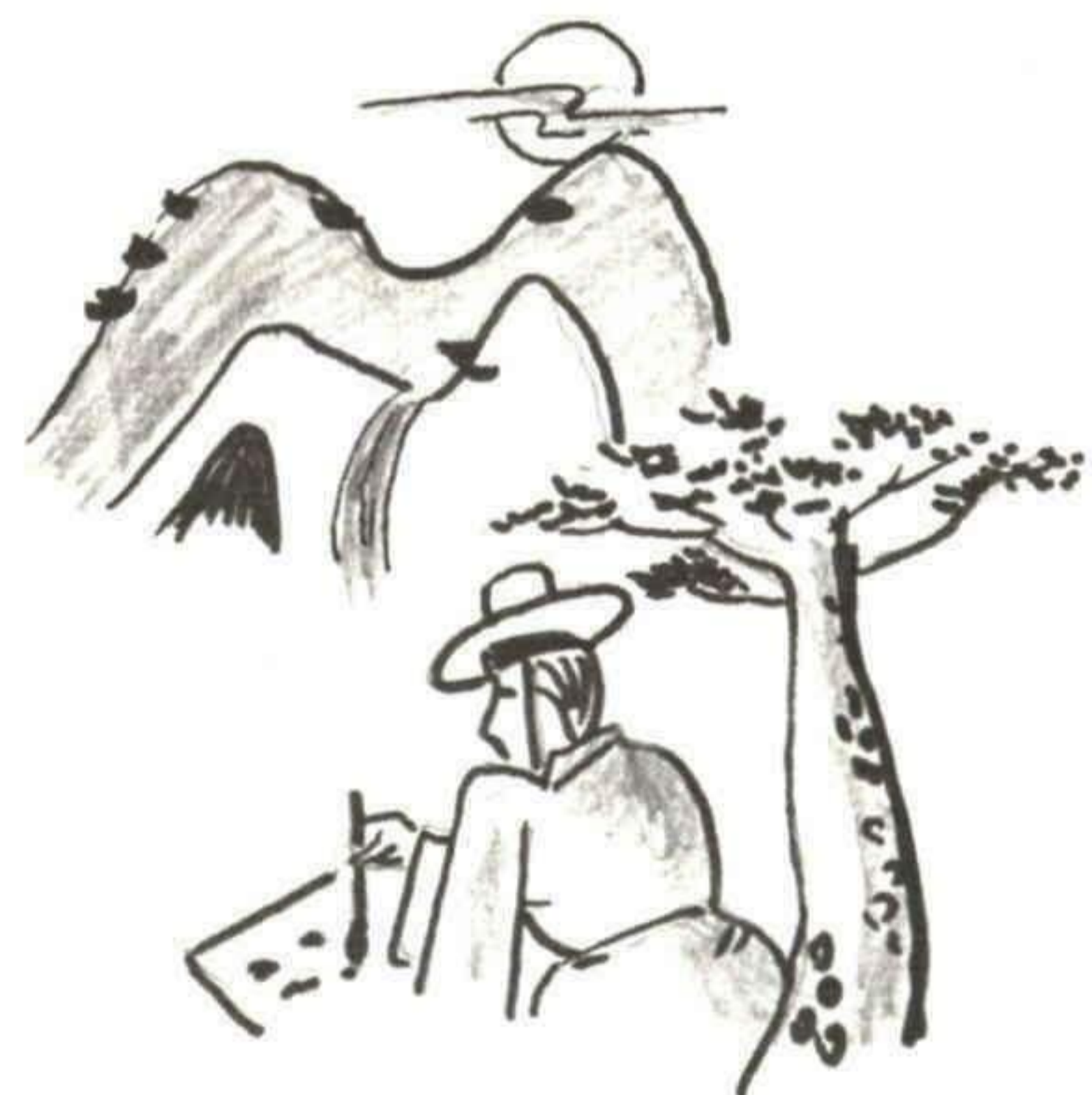
이상 내포제 시조의 음악적 특징과 그 보급방책을 논의해 보았는데 특징으로는 장식음이나 강약조절·모음의 처리가 독특하며 ‘소치는’·‘재

넘어’ 등 글자 붙임이나 모음을 받음함에 있어서도 분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사의 의미가 분명하다는 점·경제의 고음(潢)을 중간음(林)으로 내려서 부르기 때문에 가성의 창법을 쓰지 않아 가곡 창법에 가깝다는 점·그 외 요성이나 전성, 퇴성 등의 멋을 들 수 있다. 보급 방책으로는 강습회 개최·특기적성교육에서 시조부의 강화·각 군 단위의 분회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시조는 그 곡태에 따라 평시조·사설시조·지름시조·중허리 시조 등이 있고, 지역에 따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그 외의 향제로 나뉜다. 향제는 완제·영제·내포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포제는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하며, 다른 제들에 비해 꾸밈음이 많고 가사 붙임이 명확하여 아름다우면서도 시원하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후원, 그리고 시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함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내포제 시조는 충청인들의 생활과 정신, 감정과 철학이 용해되어 있다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충청인 모두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시켜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림/이엽

봉수산 임존성(鳳首山 任存城)

(483.9m)

- 충남 홍성군 금마면 · 예산군 광시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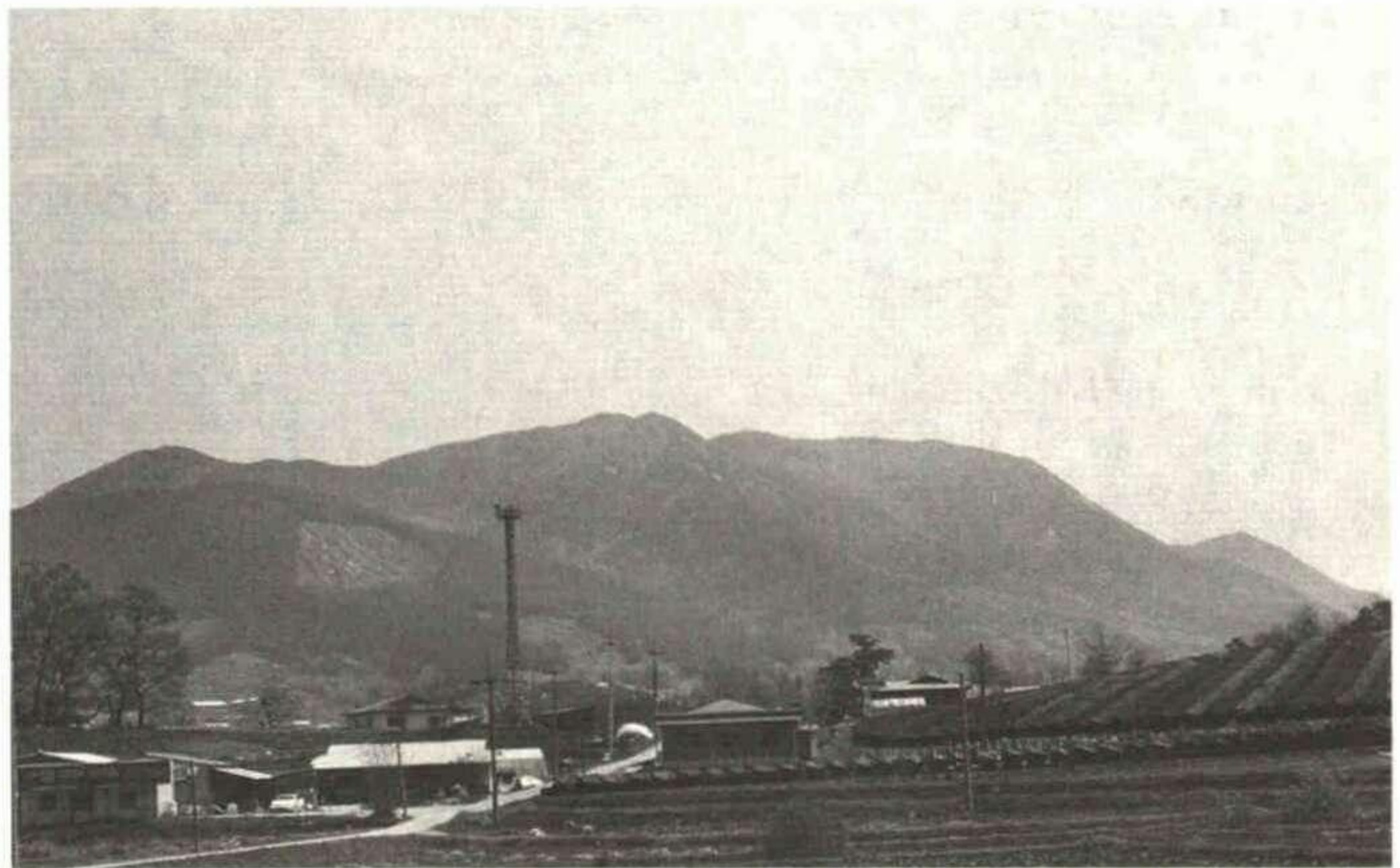


정 태 봉
홍성강남공인중개사

□ 가는 길

홍성읍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예산 쪽으로 가다가 금마면 죽림리에서 오른쪽으로 배양초등학교 앞으로 나있는 신양가는 616번 국도로 접어들어 5분쯤 달리노라면 두 번째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우회전하면 금마면 봉서리 다음에 월암리 그리고 마사리가 나온다.

봉수산은 이 근래 옛 성터를 복원시키느라 마사리에서 이산의 7부능선까지 자동차 길이 나있어 쉽게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쉽게 오르다 보니 옛날에 홍성장례식장 뒤쪽에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어렵게 오르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에서 바라본 봉수산

요즈음은 교통망이 잘 발달되어 봉수산 가는 시내버스도 많다.

홍성시내버스터미널에서 광시방면은 아침 6시 20분부터 오후 20시 30분까지 13회나 운행되고 있었다. 그중에 마사리까지가 3번, 광시까지가 8번, 그리고 인흥까지 2번이나 운행되고 있으니 하루 산행계획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산의 중턱에 있는 대련사(大蓮寺)까지도 자동차로 오를 수 있어 봉수산을 찾아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더구나 이 산을 찾아가는 예당저수지 갯변도로는 차량이 한산하여 바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현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훌가분한 기분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어 좋다.

푸른 물이 넘실대고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의 투명한 물결은 따사로운 햇볕에 굴곡 되어 물고기들의 은빛 비늘처럼 여울져 반짝인다.

사방의 푸른 산과 들은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수면 위에 드리워져 한 폭의 그림 같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가며 낚싯대를 담그고 있는 강태공들의 자유로운 모습이 더욱 해방감을 느끼게 하였다.

□ 대련사의 주불(主佛)

이산의 중턱에 있는 대련사는 극락전(極樂殿) 밑으로 삼층석탑이 있고 그 옆으로 요사채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산신각이 놓여있었다. 이 절은 1975년에 예산군의 보조금을 받아 범당인 원통보전을



대련사 극락전

뜯고 개축하게 되었다. 그때 대들보 속에서 「도광(道光) 29년 3월 16일 대련사 범당증수」라고 쓴 상량문이 나왔다한다. 도광 29년은 현종 15년 서기로는 1894년을 말한다.

그리고 정봉에 있는 임존성내에는 연당(蓮塘)과 연정(蓮井)이 있었는데 이 연꽃 연(蓮)자를 따서 대련사(大連寺)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도 발견되었다 한다.

그래서 범당의 증수 책임자인 보월 선사는 대련사를 이름 그대로 큰 연꽃모양으로 확장하려고 노전과 원통보전 그리고 산신각을 증축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기초 공사중 범당 뒤쪽에서 “극락보전”이라고 쓰여진 현판이 발견 되어 극락전(極樂殿)으로 이름을 바꾸고 주불을 아미타불로 모시게 되었다고 주지스님은 설명한다.

□ 의각(義覺) 스님의 서광

또한 대련사는 백제 의자왕 16년에 의각과 도침 두 스님이 세운 뒤 통일신라 제46대 문성왕대에 무량국사가 중창한 이름 있는 절이었다.

창건자 도침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백제의 왕족인 복신, 흑치상지와 함께 백제 부흥을 주도한 인물이다.

의각스님은 도(道)가 높은 스님으로 키가 7척 장신이고 용모가 출중하여 법학에 매우 능통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말년에 왜군에게 붙들려 일본에 억류되었는데, 일본 왕이 스님의 비범함을 보고 일본에 있는 백제사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본의 번영을 위하여 기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캄캄한 밤에 사람들은 의각스님의 방에서 서광이 뻗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도 이상하여 그의 제자 혜의스님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의각스님이 좌정을 하고 반야심경을 외우고 있는데 입에서 서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백제사람으로서 일본에 잡혀 일본국을 위해 기원해야 하는데에 대한 한(恨)과 고국의 부흥을 바라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서광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 경이로운 노목(노목)

머리 숙여 부처님께 읊을 하고 극락전 앞뜰에 내려서니 마당에 세워진 3층석탑이 보인다. 그것은 문화재자료 제178호로 남향하고 있었으나 원래위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다. 비록 높이는 2.5m정도밖에 안 되 보였으나 기단(基壇)은 단층으로 되어있고 면석은 우주(隅柱)와 탕주(撐柱)가 조각되어있어 이 절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으며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만이 남아있었다. 그 앞쪽으로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많은 가지들 뻗고 마치 부부처럼 정답게 서 있었다. 이 나무를 보는 순간 당혹스러웠다. 500년은 더 되었을 듯한 노목이기 때문이었다. 이 나무는 그 옛날 이곳에서 있었던 역사의 소용돌이를 모두 알고 있는 듯 했다.



경외스러운 대련사 느티나무

백제의 부흥군이 칼날을 부딪치고 화살을 쏘아 대기도 하며 눈을 부릅뜨고 호령하던 것을 알고 있는 산 증인으로서 그 시절을 말해 줄 것도 같았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고고한 도사처럼 전능한 신령처럼 준엄하게 서서 묵묵히 하늘만 뒤덮고 있었다. 그 밑으로는 예당저수지의 푸른 물이 한나절의 훈훈한 바람을 타고 크게 출렁이고 있었다. 절의 뒤쪽으로는 임존성의 퇴색된 성곽이 노목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 산정의 임존성



복원되어가고 있는 봉수산 임존성

대련사에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물 소리를 따라 2km쯤 올라서니 숨소리가 가빠져 온다. 앞에는 옛 성터가 나타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여기가 백제 부흥군이 웅거하며 나당연합군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텨낸 곳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덧없이 흥분되었다.

성곽은 돌과 흙으로 테피식으로 쌓여있는데, 그때의 칼과 창소리 그리고 덩덩대는 북소리는 어데로 가

고 잡초만이 우거져있었다. 둘레만 2.4km의 요철모양의 석축과 방벽, 그 속에 많은 백제인의 피와 땀이 묻혀 있으리라. 그리고 고려인들도 몽고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난 극복의 전술을 이곳

에서 논하였으리라. 28만 3천평의 넓은 자연이 이룬 지형 속에 장렬하게 전투하여 조국에 녀을 바친 그 영혼들이 이글거리는 햇살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홍성인근에 이러한 요새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곳에 어린 역사와 옛사람들의 흔적을 더듬는 일은 삶의 가치를 생성시키고 투지를 북돋아 주는 듯 하다.

□ 최후의 항거

백제는 의자왕 20년(660년) 7월 18일에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패전하여 결국은 멸망했다.

주몽의 아들 온조가 형 비류와 함께 남하하여 지금의 충청도 땅에 개국한지 678년 31대만에 파란 많은 사직을 마감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백제인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위기를 만났을 때 발동하는 우리 민족의 강한 투쟁심 때문이다.

백제인과 나당연합군의 싸운 흔적은 등산을 하다보면 많이 발견하게 된다. 그중에 이곳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과의 봉수산 임존성은 대단한 격전지였다. 의자왕이 항복하고 나라가 망하자 왕의 아우 복신(福信)과 승려 도침(道琛)은 주류성(지금의 충청도 한산)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이곳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黑齒常之)가 부흥군을 일으켜서 서북쪽에서 일어난 부흥군과 합류하여 삼시간에 3만대군이 되었다. 이들의 기세는 하늘에 충천하는 듯하였고, 이에 사비성(지금의 부여산성)에 진을 치고 있던 당나라 장군 유인원(劉仁願)은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백제 부흥군은 신라가 군량미를 운반하는 동쪽 길을 막아 나당연합군을 식량부족에 빠뜨렸다. 한편으로 일본에 갔던 왕자 풍(豊)이 5,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귀국하였다. 백제 부흥군은 그를 왕으로 삼고 고구려와 일본국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나당연합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당나라에 지원군을 더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당나라 장군 유인궤(劉仁軌)가 구원군을 이끌고 도착하였고, 전세는 나당연합군이 다시 유리하게 되었다. 때문에 백제 부흥군은 나당연합군의 포위망을 뚫고 다시 임존성으로 후퇴하였다.

부흥군은 임존성의 성곽을 재수축하고 모든 것을 전투하기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성 바깥쪽에는 독을 쌓고 땅을 파서 물을 받아 이른바 수성(水城)을 만들었다. 적이 쳐들어오자 이들은 독을 터뜨렸다. 많은 적군들이 세찬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 갔고, 간신히 빠져나오더라도 굴러 오는 바위와 돌의 공격을 받았다. 적이 아우성을 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면 부흥군들은 창과 칼로 뒤를 쳤다. 전장상황은 한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각축전의 양상이 되어갔다.

그러나 안타깝기 그지 없도다!

나라를 구하느냐 마느냐의 숨막히는 순간에 내분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게되니, 이보다 더 한심스러울 수가 있겠는가! 이유는 다름 아닌 지도자들의 불화였다. 이 다툼은 곧 부흥군의 자멸을 초래하였고, 결국 백제 부흥군의 꿈은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복신이 도침을 죽였고, 그 자신마저 왕 풍에게 살해되었다. 자중지란의 자초는 멸망으로 연결되고 마는 법이다. 풍은 비열하게 도망가고 말았다. 흑치상지와 사타상여는 유인원의 설득으로 당군에 항복하고 말았다.

임존성에서 끝까지 항거한 지수신은 고구려로 도망친다. 후삼국 시대에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도 오랫동안 엮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두 나라는 이곳 임존성 부근인 운주(지금의 홍성)에서 큰 싸움을 했다. 당시 후백제의 영토였던 이 임존성은 고려에게 함락된다. 이로써 후백제까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 군사적 요새(要塞)

이곳이 백제부흥군의 기지가 된 첫 번째 이유는 지형상의 자연조건일 것이다. 서쪽과 북쪽은 경사가 급하여 적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기 쉽고, 또 불화살을 쏘고 바위나 돌을 굴러 내리는 등 공격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안에는 수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물이 있고, 나무가 많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군막을 세우기 적당하였다. 많은 병사들이 훈련하기에도 좋을 만큼 땅은 넓고 크다.

둘째로 이곳이 서부지역의 중심이므로 군량의 각출과 운반 그리고 저축의 조건이 맞기 때문이다. 이에 걸맞게 성벽의 규모와 상태는 부분별로 다르고, 높이는 약 2-3m 정도였다. 남쪽 성벽은 굴곡이 심하였으나 성의 안쪽으로는 도랑이 많았다. 성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깥쪽은 석축으로 쌓았으나 안쪽은 돌과 흙을 혼합하여 쌓아있었다. 물이 나오는 샘을 자세히 찾아보니, 성안에는 세 개 정도의 물이 나오고 있었다. 남쪽성벽에는 길이 30cm쯤 되며, 폭이 70cm 정도의 수구(水口)를 설치하고 있었다. 성의 주문(主



백제 임존성의 유물지

문)으로 추측되는 남문 터는 성벽이 두터우며 성문의 일부로 생각되는 석축구조가 보이고 있다.

성내에는 백제시대 토기와 기와조각이 가끔 발견되고 계단식 건물 터가 나오고 있으니, 백제부흥군의 군사적 요새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듯하였다. 꼬불꼬불 하산 길 위로 시원한 바람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테피식 석성 위의 잡목 속에서 무엇에 놀랐는지 새들이 후다닥 날아 오르고 있었다. 흑치상지장군이 이끄는 백제의 부흥군들이 기어오르는 적군에게 돌을 굴리고 화살을 쏘아대고 있었다. 북과 징소리가 범람하고 사나운 눈빛들이 푸른 하늘에 번쩍이며 무리 지어 진군하고 있었다. 나당연합군은 병마를 타고 창칼을 휘두르며 진격해왔다. 백제부흥군들이 출중한 담력과 용맹으로 북과 징소리와 함께 막아내고 있다. 저 멀리 나래를 편 산맥들이 먼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옛사람들은 가고 없어도 산상에 남은 무수한 발자국의 행렬은 끊임 줄 모르는 상상의 뇌리에서 부흥군의 행진하는 모습을 한없이 만들어 냈다.

여름날의 끈적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와 역사의 무심함과 장구한 세월의 허무를 함께 몰아가고 있었다. 기울어져 가는 태양과 더불어...◇

살구씨! 아 시름해!



김용신 수필가·김내과의원 원장

맛의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곧 입속에 침이 돈다. 우리 소화기관은 곧 소화시킬 듯이 빨리 음식물이 들어오기를 갈망한다.

살구씨! 이 세마디 단어를 듣는 수가 우리 인속에서는 신물이 돌며 입을 다시게 된다. 이 세음절의 소리가 귓바퀴를 거쳐 가운데귀 그리고 속귀의 달팽이관의 가는 털무리를 떨게 하는 순간 기억중추와 연상중추는 그 맛을 떠올려 곧 반응하게 만든다.

‘아 시름해! 음! 먹고싶다!’

이렇게 우리 몸은 한두 마디의 순간적인 소리에 반응이 오고 신체에 변화가 일어난다. 무심코 넘기는 사소한 반응 같지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며 진리이다. 화를 내거나 싸운 후에 먹으면 체한다는 경험적 상식을 얘기하지만 그때만이고 곧 잊어버리고 찌들은 생활습관에 내맡기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얼굴이 웃으면 소화기관 위장이 웃으며 소화가 잘 되고 얼굴이 찡그리면 위장도 움츠러들어 소화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럴진대 하물며 화를 내고 우울해하고 원망과 복수심으로 괴로워한다면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는 얼마나 심할까?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지 못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그 해로움은 얼마나 클까?

흔히 나이 삼십을 넘기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얘기도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얼굴의 표정은 그의 정신적 세월의 총체적 집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 예수님 보고 싶어? 살아 있는 예수님 보고싶어?” 이런 얘기도 사랑과 평화, 용서와 기

도로 평생을 지켜온 어떤 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요즈음 ‘감자탕 교회’라는 책이 인기다. 어둠을 어둠이라 썩은 것을 썩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똑똑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둠에 빛을 발하고 썩은 것에 소금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얘기다. 마음을 비우니 스트레스가 쌓일 일 없고 비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너그러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뿐이니 감자탕교회 사람들은 모두 행복에 넘쳐있다.

이제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으려면 뇌에서 미소근육에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자니 웃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야한다. 화내는 것과 정반대의 신체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계 영화배우가 기막히게 죽는 연기를 많은 작품에서 해냈다. 자살하는 연기가 일품이었다. 그는 정상에 올랐고 부를 누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연기에서 보여주었던 그대로 자살하고 말았다. 의도된 연기에 불과했으나 그의 핏줄엔 우울과 슬픔의 물질이 넘쳐났다는 의학적 추리가 무리일까? 행복한 연기를 연거푸 했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가 더 많지 않을까?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른 가수가 노래가사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사랑해요, 당신을 살구씨처럼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새콤한 행복의 침이

입안에서 흐르지 않겠습니까!

백두산을 다녀와서



최규원 **홍성경찰서 구항파출소 경장**

7월 11일 셋째 날

아침 일찍 백산대주점 호텔을 출발한 버스는 8시 안도현 송강진 한림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이른 아침인데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어린 학생들이 나와 손수건을 팔고 있었다. 화장실에 문이 없던 휴게소에 다시 들러 불일을 보고 차는 북경을 향하여 출발을 하였다. 연길시 연병관광쇼핑센터에 도착하여 2층 식당에서 식사들을 하고 1층에 위치한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였다. 그리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진열된 상품들 또한 많지는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집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여 우황청심환과 호랑이연고를 구입하였으며, 회원들도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상품을 구입하고 있었다. 다시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연길시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가이드 설명에 연길시에는 38만명이 주거하며 이중 우리 한민족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를 주행하는 많은 자전거에도 번호 판이 부착되어 있어 번호 판이 없는 경우 공안들이 이를 단속하여 자전거를 몰수한다는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정오를 약간 지나서 헤란강을 눈앞에 두고 야트막한 야산에 서있는 일송정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였으나 길이 좋지 않아 오르지 못하고, 먼발치에서 일송정 푸르른 숲~ 선구자 노래를 부르며 기념촬영을 하고 돌아서야만 했다.



대성중학교 운동주 시비 앞에서

일송정을 떠난 버스는 우리를 용정중학교(현 대성중학교)에 내려놓았다. 교정 입구에 운동주 시인의 서시 시비가 세워져있는 옛 대성중학교에는 그 예전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2층에 운동주 시인 및 독립투사 등의 자료가 보존 전시되고 있었으며, 우리민족의 후예들을 위하여 방명록에

기록을 남겨두고 성금을 받고 있었다. 북한 만경대 전시관에 도착하여 안내양의 설명을 들었다. 전시관은 총5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주로 수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손으로 만든 수놓은 제품들은 아름답기가 그지없었으나 수공예품인 만큼 가격은 대단하였다.

버스는 두만강변 도문시에 도착하였다. 북한과 중국간에 연결되어 있는 중조국경 다리는 길이가 약400미터로 강물이 흐르는 폭은 약100여미터 정도가 되었으며, 다리의 1/4가 중국, 3/4가 북한영토로 되어 있었으며 다리건너 북한 지역에는 얇은 아파트 식의 건물이 여러 채 있었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가이드의 안내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에 친척들이 있는 사람들은 중조국경 다리를 통하여 왕래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마침 강 건너 나무 밑에서 병사 2명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쪽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



두만강변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삶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도강하여 중국 쪽으로 밀입국한다는 곳이 여기가 아닌가 생각되었고, 강변 공원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구걸을 하는 우리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리말을 잘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다.

저녁 무렵 우리는 북경 시내 곰 사육장에 도착하였다. 반달

곰을 사육하고 있는 장면과 3년이 되면 장백산 곰 기지에 2년 동안 방목을 하였다가 다시 잡아들여 곰 몸속에 빨대를 삽입하여 쓸개즙을 일주일에 1-2회, 50-70cc 정도를 받아내고 있다는 말에 좁은 우리에 갇혀 있는 곰들을 바라보니 매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초원을 뛰어 다녀야 할 반달곰을 한 평도 안 되는 우리에 가두어 놓고 주는 먹이만 받아먹고 있는 곰들을 상품화한 사람들이 조금 미워졌다. 저녁시간이 되어 혼례청사식당에 도착하여 2층에서 냉면으로 저녁을 먹고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연길공항에 도착하였다. 수속을 마친 우리 일행들은 CA1616항공기 편으로 연길을 출발 북경으로 향하였다. 이렇게 연길에서의 관광을 뒤로한 채 구름 위를 나르는 비행기는 사막의 지평선을 보는 듯한 환상의 실루엣을 구름 위에 만들며 북경을 향하고 있었다. 공항을 나서는 우리들에게 차마 손을 흔들지 못하고 2박 3일 동안 안내를 하던 조선족 후예, 이화가이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꺾직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예쁜 얼굴에 소박한 웃음을 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성심껏 열중했던 그녀는 짓궂은 우리들의 언행이나 행동도 재치로 넘겨받았다. 심지어 두만강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구겨진 모습이나 싫은 말 한마디 없이 재치로 웃음을 준 그녀에게 지면에서 만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렇게 그녀와의 이별이 있었고 우리는 새로운 가이드를 만나러 북경으로 향했다. 북경에 도착하여 공항을 나와 현지가이드 박춘녀(당25세)의 안내를 받아 북경 베이징컨티넨탈그랜드 호텔에 여정을 풀었다. 회원들은 호텔 한방에 모여 출발지에서부터 가지고 온 팩소주 한 잔으로 기분을 달래고 잠을 청하였다.◇

긴 겨울을 보내며



고광철 수필가 · 한국문협 홍성군지부 회원

어느덧 차디찬 긴 겨울이 지나고 꽃샘바람 속에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 희망의 이른 봄날이었다.

그 날 붉은 저녁 노을을 받으며 10대 몇 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밧줄에 묶여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여 신입대기로 들어서고 있었다. 자주 보아야 하는 우울한 광경이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은 우선 부모 한쪽이나 양쪽의 무관심과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어서 학교로부터 포기선고를 받고 사회에서는 냉대와 무관심 속에 방치된 어둠의 자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이는 곳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의 어두운 그늘이었고, 결국 비슷한 처지의 이들이 어울리며 사는 삶은 본능에 가까운 의무 없는 방탕한 자유

였으며, 가정에서부터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자란 이들이기에 별다른 윤리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무차별적인 각종 유형의 범죄를 되풀이하다 결국 최종 정착지인 높은 교도소 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일찍부터 제멋대로 반항적으로 살아 온 이들의 생활형태는 이곳 담 안에서조차 주변과 함께 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더해 가면서 문제수로 낙인찍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받으며 많은 날을 제한된 공간에 갇혀 스스로 힘든 징역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둘의 사악한 수용자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수용자를 같이 물들지 않게 보호하려는 교도소 측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은 인생들이기에 종교생활을 권하고 각종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의 현상은
우선 부모 한쪽이나 양쪽의 무관심과 버림을
받은 것이고, 이어서 학교로부터 포기선고를 받고
사회에서는 냉대와 무관심 속에 방치된 어둠의
자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생활형태는 이곳 담 안에서조차 주변과 함께 하지 못하고, 크고 작은 다툼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더해 가면서 문제수로 낙인찍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받으며 많은 날을 제한

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담 안에 갇힌 이들의 마음도 함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기능교육을 시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되기를 바라며 내보내려는 교도소 측의 정책이 계속되어 이어지지만 바깥사회는 담 안 사회의 거울이기에 이들이 막상 출소하여 바라고 빌던 함께 하는 포근한 사회가 아니기에 이들은 또다시 쉽게 포기하고 더욱 지능화, 엮기화 된 범죄의 꽃을 피우고 다시금 높다란 담 안의 생활 속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명분과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가 최상의 대우를 받는 기형적인 우리 사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한탕으로 부를 축적하면 무조건 대접받는 이 잘못된 현실에서 이들의 되풀이되는 범죄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힘있는 자와 가진 자의 검소함과 도덕성이 회복될 때 어둠의 그늘에서 일탈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지, 지금껏 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잘못된 사회의 병폐는 앞으로 수많은 어둠의 자식들을 배출하고 더욱 잔인한 범죄인들을 양산시키는 비극의 어두운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감방에 갇힌 한창 피어나는 흥안의 소년 피의자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가올 황사바람 만큼이나 우울한 마음이다.

집 뒷밭 독에 서 있는 매화가지가 하나 꺾여진 채 긴 겨울을 보냈다. 이미 말라죽은 줄 알고 다가간 내 눈에 그 꺾여진 가지에도 물이 오르고 꽃망울이 부풀어오르는 것이었다. 결코 절망의 겨울이 아니었던 것이다. 가을에 꺾여졌던 가지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 내고 살아났던 것이다. 매화가지의 끈질긴 삶에 경외스런 마음뿐이었다. 밭둑 양지쪽으로 파랗게 달래와 쑥잎이 자라고 있었다.

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담 안에 갇힌 이들의 마음도 함께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림/이업

결성읍성곽고찰(結城邑城郭考察)

(유서깊은 결성골 명승고적 보존시급)



황성창 홍주향토문화연구회 부회장

1. 결성연혁

- 결성은 원래 개리이(皆利伊)
- 삼한시대는 마한의 고비리국(古卑離國)
- 백제시는 결기군(結己郡)
- 신라 결성군(潔城郡) 개칭(改稱)(三 領縣 新邑 新良 興陽-금 장곡, 보령, 천북)
- 고려 태조23년(940) 결성군(結城郡) 개칭
- 현종 9년(1018) 운주(運州)(금 홍주(洪州)) 속군
- 명종 2년(1172) 감무관(監務官) 배치(配置)
- 태종 13년(1413) 치현감(置縣監)
- 신증 홍무삼십년(1397) 이읍(移邑) 신금성(神衿城)
- 건문 2년(1400) 이읍(移邑) 산성(山城)
- 옹정 11년(1733) 시부죄인차귀섭출혁속보영현(弑父罪人次貴變出革屬保寧縣)
- 건융 원년(1736) 인대신진달복읍(因大臣陳達復邑, 9개 면 관할)
- 고종 32년(1895) 결성군(10개 면 관할)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홍주군과 결성군이 통합 동시 홍성군이 되고 결성은 면으로 격하(格下) 됨

2. 결성읍성

1) 성곽의 서론

성은 외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운 축조물인데 성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것으로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시대적 조건에 따라서 그 규모와 형식, 구조 등이 판이하다. 우리나라의 성곽은 대체로 5종류로 나누어진다.

산성과 토성, 도성 또는 읍성, 장성, 진성 등인데 결성 읍성은 산성으로 석당산(石堂山)을 의지하여 석축성(石築城)이다. 원래 백제 결기군때는 신금성(神衿城)에 치소로 수차 왜구의 침략을 받아오던 중 석당산 정상 구(舊) 관아지(官衙址) 주회 453보(2,718척)의 테피식 고성지(古城址)에 건문 2년(1400)에 읍치소를 옮겼다고 문종원년(1451)에 증개축(增改築) 한 후 지금의 위치에 관아를 다시 옮겼다.

2) 위치와 연혁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712-715 번지의 읍내 남방에 솟은 석당산의 북쪽 기슭을 에워싼 석축성이 조선조의 대표적인 결성 읍성지이라 한다. 읍성의 북벽은 산기슭에 형성된 민가에 의해서 왜정 폐군(廢郡)시 파괴되었으나 웅성(甕城)의 석축이 형체가 남아 있다. 이 성은 평지의 읍성과 달리 포곡식(包谷式)의 산성형태를 가지고 있다. 읍성지는 본디 결성현의 산성이었던 옛 성을 개축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나 <결성현지(結城縣志)>에서 건문 2년(1400)에 신금성에서 산성으로 이읍했다는 기록과 관안(官案)조에 배침(裴簷) 이읍의 산성을 축조한 것으로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산성으로 이읍은 석당산 정상부가 테뫼꼴로 꽤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커다란 초석군(礎石群)이 존재하고 있어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성이 다시 읍성으로 조축된 것은 1451(문종원년)에 해당하니 “문종실록 권10 문종원년 신미 십월에 축(築) 충청도 결성현성(結城縣城)”이란 기록이 있어 분명하다. 당시의 읍성은 규모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나 조선시대 초기의 읍성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인 석축성벽 적대, 웅성, 해자 등이 현존의 읍성에 그대로 형적이 남아 있음을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결성 읍성성을 주회사백오십삼보(周回四百五十三步) 내유정(內有井) 동하불갈(冬夏不渴)이라고 하였고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석축주삼천삼백이십오척(石築周三千三百二十五尺) 고구척(高九尺)이라고 기록하였다.

문종대에 읍성이 축조되었는데 세종대에 둘레 453보(2,718척)의 읍성이 있었다고 함은 현존읍성이 전의 산성에 읍치(邑治)를 둔 상태의 산성규모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충청도읍지) 45 결성현 성곽조(城郭條)에서 읍성 석축주회삼천(石築周回三千) 삼백이십오척팔촌(三百二十五尺八寸) 이고지산성도내열(以古之山城道內列) 읍축성지(邑築城之) 각각기각역축형지(各各記刻役築形止) 이기진붕퇴내유육정(而幾盡崩頽內有六井)이라 하여 옛 산성을 가지고 새로이 도내 각 읍의 정부를 동원하여 쌓을 때 구간마다 기 각역축했다고 하는 석벽에 ‘아산시면’이라는 음각이 지금도 남아있다. 또 <결성현지>에 의하면 성문은 동문, 서문의 두개가 있었다고 한다. 결성현누정에서는 읍성의 동문이 진의루(振衣樓)라는 이름으로 나와있다. 읍성내에는 평근당(내동헌) 망일헌(외동헌) 형방청 천자고, 지자고 현자고 공고 화약고 군기고 등이 있었고 특히 읍신당이 진산의 꼭대기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공조 참판 김덕함과 정부인 조씨의 신위가 모셔져 있었고 세선이 장차 떠날 때는 선인들이 이곳에 기도하여 양신한 다음에 출발했다고 한다. 세곡의 조운을 위한 해창이 동산 밑 쪽 금곡천 서안에 있었던 것과 같고 <여지도서>에 의하면 결성현이 18세기 후반에 10개 면 761호, 2714구였고 읍성의 동문인 빈일루삼간 단층이었다. 읍성의 동문터는 유적의 형체가 남아있고 웅성도 원형을 갖추고 있다. 서문은 결성관인 객사41간 규모의 뒤 북서각에 웅성을 갖춘 문터가 남아 있다.

3) 읍성지의 현상(충대박물관팀의 지표조사에 준하면)

결성 읍내리와 성남리 사이에 솟은 해발 146.4m의 석당산의 북동 사면(斜面)을 두르고 있는 석축의 성벽은 등성을 따라 둘러워져 있다. 모산만이 보령군과 경계를 지며 남방을 휘감아 동으로 깊숙하며 금곡천이 형산으로 이루어지면서 은하면을 나누어 동남이 자연 해자를 형성하였다.

결성읍성곽현상태



1. 1923년 일제가 훼손한 성동문지(진의루)



2. 동문 옹성벽



3. 성동북성벽



4. 동북연벽



5. 동문 옹성 편문지



6. 동벽과 해자



7. 암문지와 해자



8. 동남벽과 해자



9. 동남벽 치성



10. 훼손된 성벽



11. 남벽치성



12. 성남벽



13. 남연벽



14. 남벽해자



15. 구관아지와 남벽



16. 공심돈과 봉화대



17. 성정상 곡성지



18. 정남벽 해자



19. 협축성 정상



20. 서남벽 치성



21. 서벽 산성지



22. 서문 옹성 문지



23. 서문 옹성 문지



24. 서문문지



25. 서벽 산성지



26. 서문 옹성 문지



27. 서문 옹성 문지



28. 서문 옹성 내부



29. 성동문 응성 문석



30. 역축 "아산시면" 형적



31. 동헌(망일헌)
(문화재자료 306호)



32. 책실(문화재자료 306호)



33. 형방청(문화재자료 306호)



34. 성내관아문(결성아문)

석당산은 남북, 동서가 각기 4Km 쯤의 범위 내에서 중앙에 솟은 독집산괴를 형성하고 서로는 해발 106.2m의 왕자산 북서로 해발 230.2m의 청룡산(봉수대)과 마주 건너다 보인다. 바다 쪽인 서방에 멀리까지 통만이 되는 위치이며, 깊숙이 들어간 무산만 방면으로 침입하는 적이 한눈에 식별되는 좋은 조건을 구비한 위치이다. 읍성지는 이미 연혁과 같이 고려 말 이전에는 산성으로 축조되었던 것이나 읍성치소를 평지구상의 신금성으로부터 이곳으로 옮긴 다음 읍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수축되었던 것이다. 읍성의 북벽은 산밑 민가에 묻혀 원형을 많이 잃었지만 서, 남, 동벽은 무너진 대로나마 원형을 알 수 있고 성벽 외측의 해자도 본디의 모습을 많이 잃었으나 원형에 가깝도록 확연한 모습이 남아 있다. 읍성은 둘레가 3,325척 8촌이라는 기록이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3,325척 9척, 이외에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자세한 규모를 밝히고 있다. 즉 읍성석축(邑城石築) 주회이척계지척(周回以尺計之則) 삼천삼백이십오척(三千三百二十五尺) 팔촌이계지척(八寸以計之則) 삼백삼십이장(三百三十二丈) 오척(五尺) 팔촌(八寸) 이보계지척(以步計之則) 오백오십사보(五百五十四步) 일척(一尺) 팔촌고이척계지척십사척이장계지척일장사척이계지척이보이척타무옹성이곡성일동서이문이동문누일층서문무누각(八寸高以尺計之則十四則以丈計之則一丈四尺以計之則二步二尺堞無甕城二曲城一東西二門而東門樓一層西門無樓閣)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후기 18세기경에는 여장 또는 해자나 적대(치성)암문등의 기록은 없다. 읍성은 현상이 보여주듯 군데군데 내외 협축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내탁외축(內托外築)하였다. 외면의 석축은 조선 전기의 일반적인 양상처럼 하부는 자연석 대석을 사용하고 상부는 석재가 작아지고 췌기 돌을 끼운 것이다. 내면에는 경사를 이루며 흙을 두텁게 덮은 내탁이지만 치성부는 응성과 같이 각을 이룬 석축이다. 성벽외면의 하면은 해자를 향해 경사지도록 흙을 덮고 있다. 서벽의 일부를 보면 내외 협축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폭이 약4.5m 높이는 내측이 2-3m 현존하고 외측의 복원치는 높이 3-6m 임을 알 수 있다. 성벽외측에서 13.5m 쯤 해자가 시작되는 바 해자는 내측의 현존높이가 약 4m이고 외측부는 약 70cm로서 메워진 상태의 해자이긴 하나 꽤 양호하게 보여 외측의 독을 기준해 폭은 6m 이상이나 된다. 성벽은 4-5m이고 해자는 산기슭을 따라 서벽과 동벽의 경우는 거의 일정히 간격으로 두고 있다. 성벽은 산의 정상부 능선을 따라가고 있어서 성벽과의 간격은 불균하다. 본성에는 치성이 남아 있다. 숲이 우거져 전체의 수를 정확히 파악치 못하였으나 서벽부에 2곳에 남벽부에 2곳이 확인되었다. 읍성의 기록에는 해자나 치가 있는 조선초기의 것이다. 석당산 정상부

에 대지가 동서로 마안형을 이룬 꽤 넓은 테피꼴을 이루고 있어 당초의 산성을 추측케 한다.

4) 읍성 정상에 연접(連接)된 산성고기(山城古基)

읍성의 남벽은 석당산의 정상을 동서로 달리고 있다. 길다란 능선을 이루며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아지며 능선의 남면은 북면보다 좀 더 가파른 기슭을 형성한다. 정상에서는 사방이 내려다보이며 동서로 길다랗게 들어온 바다(모산만)와 멀리서 남쪽 해상에 작은 섬들도 잘 보이고 있다. 전망은 아마도 왜구의 침입이 많았던 고려 후기에 있어서 읍성이 신금성에 자리 잡았을 때에도 일종의 통망처나 연락처로서 이용되었을 법한 위치이다. 그리고 이곳 정상에 고산 봉수대와 호응한 봉화대터와 공심돈(空心墩)이 지금도 남아있다.

5) 초석군과 출토유물

산성의 고기(古基)로, 석당산 정상부 중앙대지에는 즐비한 초석군이 확인된다. 이곳에는 많은 김해식토기와 백제토기 1. 우각형(牛角形) 파수부(把手附)토기 2. 승석문(繩蓆文)토기 3. 격자문(格子文)토기 4. 삼족(三足)토기 5. 평와편(平瓦片) 등 생활유물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시대까지 생활유적이 출토되고 있어 충분한 고증자료가 되고 있다.

6) 결론

- ① 석당산 정상에 백제때부터 453보의 산성이 세종실록지리지 기록 등 그 역사성을 증명함.
- ② 홍무 30년(1397) 이읍 신금성. 건문2년(1400)이읍산성.
- ③ 1451(문종원년) 석축주 3,325척 고9척(동국여지승람).
- ④ 본 성은 협축성(夾築城)으로 대개 외축내탁(外築內托) 성에 1665년(강희4년) 관아를 산하 현 위치로 이읍시에 여지도서(輿地圖書)와 같이 성고 14척 옹성 2와 곡성 1 동서이문(東西二門) 평거식(平掘式)과 편문형식(片門形式) 옹성문 등 성외 치성(雉城) 그리고 해자(壕宇)를 축조한 것으로 조사 됨.
- ⑤ 성곽은 조선전기의 축조 모습인 자연석의 동서문지와 치성, 옹성 등은 협축이고 전반적으로 외축내탁이며 성의 해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 성의 특색이다.
- ⑥ 석당산 밑에 현관아지와 인접한 712-715번지 등 전반적인 성지가 국유지로 남아 있으며 3분의 2가 산성에 연접되어 대지매입 할 필요 없이 좋은 조건으로 사료됩니다.
- ⑦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내포지방 천수만의 중심지인 역사와 문화의 고장을 새롭게 가꾸기 위하여 보존가치가 매우 큰 결성읍성곽을 문화재 지정과 원형 복원하여 문화 유적 거점지로 조성요망하오며
- ⑧ 성곽보존을 위하여 결성문화재보호회 발의로 총화협의회에서 결의하고 금년 봄 3월 26일을 기해서 2차에 걸쳐 각 기관사회단체원 200여명이 출동 결성폐군이래 처음으로 성지 잡목초 제거를 우선으로 실시 큰 효과를 거두어 서해내포의 고읍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동국여지승람, 향토사연구소편람, 문종실록, 세종실록, 충청도읍지, 결성현지, 여지도서, 국사대사전, 지표조사서, 홍성군지, 대동지지, 결성현지도, 한국지지, 조선성곽일람

주부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 상식 스물 한 가지 ①

먼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환경상식 백가지(구자건 지음, 현암사)” 책에서 자료를 뽑은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글을 통해 환경상식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정수기의 올바른 선택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기의 수요가 늘고 있다. 정수기란 말 그대로 물을 깨끗이 하는 정수(淨水) 장치이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정수시가 다 정수 기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환경부가 1994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판되고 있는 정수기 가운데 정부가 고시한 품질 규격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시가 품질 규격 기준에 합격하려면 정수한 물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아야 하나 이에 합격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정수기의 품질 규격 기준을 맛, 냄새, 탁도 등 6~10개 항목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시판되고 있는 모든 정수기가 규격 미달이기 때문에 나온 교육지책으로 생각된다. 정수기의 성능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을까?

정수기가 품질 규격 기준에 미달한 까닭은 수질 오염이 매우 심한 물로 시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수기 제조 업체들의 주장이다. 정수기의 성능을 시험할 때 수돗물보다 지나치게 오염된 물로 시험을 해 정수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말이다.1)

정수기를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마시는 수돗물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는 제조원에 따라 그 정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의 종류는 약 250여 가지나 된다.

정수 방법 역시 막여과식(필터식), 활성탄 여과식, 이온 교환 수지식, 역(逆)삼투압식 등 여러 가지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정수기들은 이 같은 정수방법을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 결합해 만든 것이다.2)

막여과식 정수기는 세라믹이나 기타 다공성 여과막을 이용하여 물 속의 오염 물질을 걸러 내는 정수 장치이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수기 대부분이 바로 이 필터식 정수기이다. 필터식 정수기는 탁도나 색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은 양호하나 중금속이나 합성 세제, 농약류등

은 제거하지 못한다. 필터가 제 성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교환해 주어야 한다.

활성탄 여과식 정수기는 활성탄의 흡착, 흡수 기능을 이용해 물 속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정수 장치이다. 과거에 조상들이 숯을 이용해 물을 깨끗이 했던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활성탄은 농약류나 합성 세제, 그리고 냄새의 제거 기능이 우수하나 흡착이 진행될수록 효율이 저하되므로 때를 맞춰 교환하거나 재생시켜 주어야 한다.

이온 교환 수지식 정수기는 물 속의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물, 그리고 철, 납, 구리, 아연, 카드뮴과 같은 금속류를 이온 교환 수지의 나트륨이온과 교환하여 정수 하는 방식이다. 주로 센물(경수)을 단물(연수)로 바꿀 때 많이 사용된다. 금속 이온의 제거 효과는 높지만 농약이나 합성 세제, 세균과 같은 물질을 제거하기는 곤란하다.

역삼투압식 정수기는 삼투압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한 정수 방식이다. 즉 물에 압력을 가하여 깨끗한 물만이 반투막을 통과하도록 하고 물 속의 오염물질은 걸러지도록 한 것이다. 반투막으로는 세포의 원형질막처럼 극히 미세한 분리막(멤브레인)이 사용된다. 최근 들어 이 방식을 이용한 정수기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방식은 물 속에 포함된 오염 물질의 제거 효율이 매우 높으나, 음용수로서는 지나치게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역삼투압의 원리는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기초 지식을 토대로 정수기를 구입하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3) 우선 제조원이 확실한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방문 판매일 경우 이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 제조원의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지 그리고 사용 설명, 구조 설명, 설치할 때의 주의사항이 잘 표시되어 있는지 살핀다.

마찬가지로 애프터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하면 제품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다. 즉, 내부 청소는 쉬운지, 흠집이나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필터교환이 용이한지 살핀다. 또 정수기 내부의 오염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수기가 좋으므로 이를 살펴보고 수도꼭지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정수기일 경우 어댑터가 견고한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정수기의 오염 물질 제거 능력, 가격, 필터의 수명 등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에 가장 알맞은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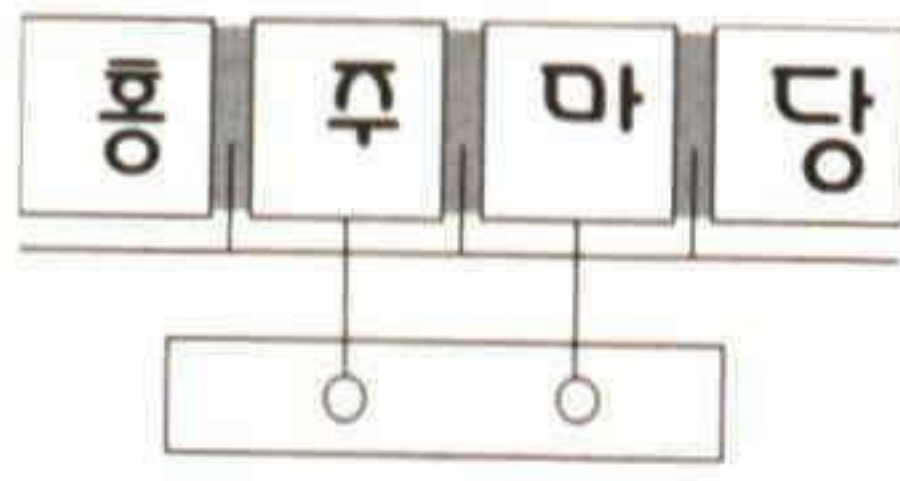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정수 방식을 가진 정수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수도꼭지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녹물이 섞여 나오거나 침전물이 생겨 정수기를 구입한다면, 마이크로 세라믹 필터와 활성탄을 같이 사용한 정수기를 구입하면 무난하다. 그러나 이 모든 정수기는 별도의 미생물 증식 억제 장치가 없는 한 병원성 세균의 증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중앙일보, 1994년 7월 18일자.

2) 남상호, 『정수기-종류와 기능』, 『약이 되는 물, 독이 되는 물』, 허정(감수), 중앙일보사, 1992, 112-115쪽.

3) 서정희, 『정수기의 구입·사용은 이렇게 하라』, 『약이 되는 물, 독이 되는 물』, 허정(감수), 중앙일보사, 1992, 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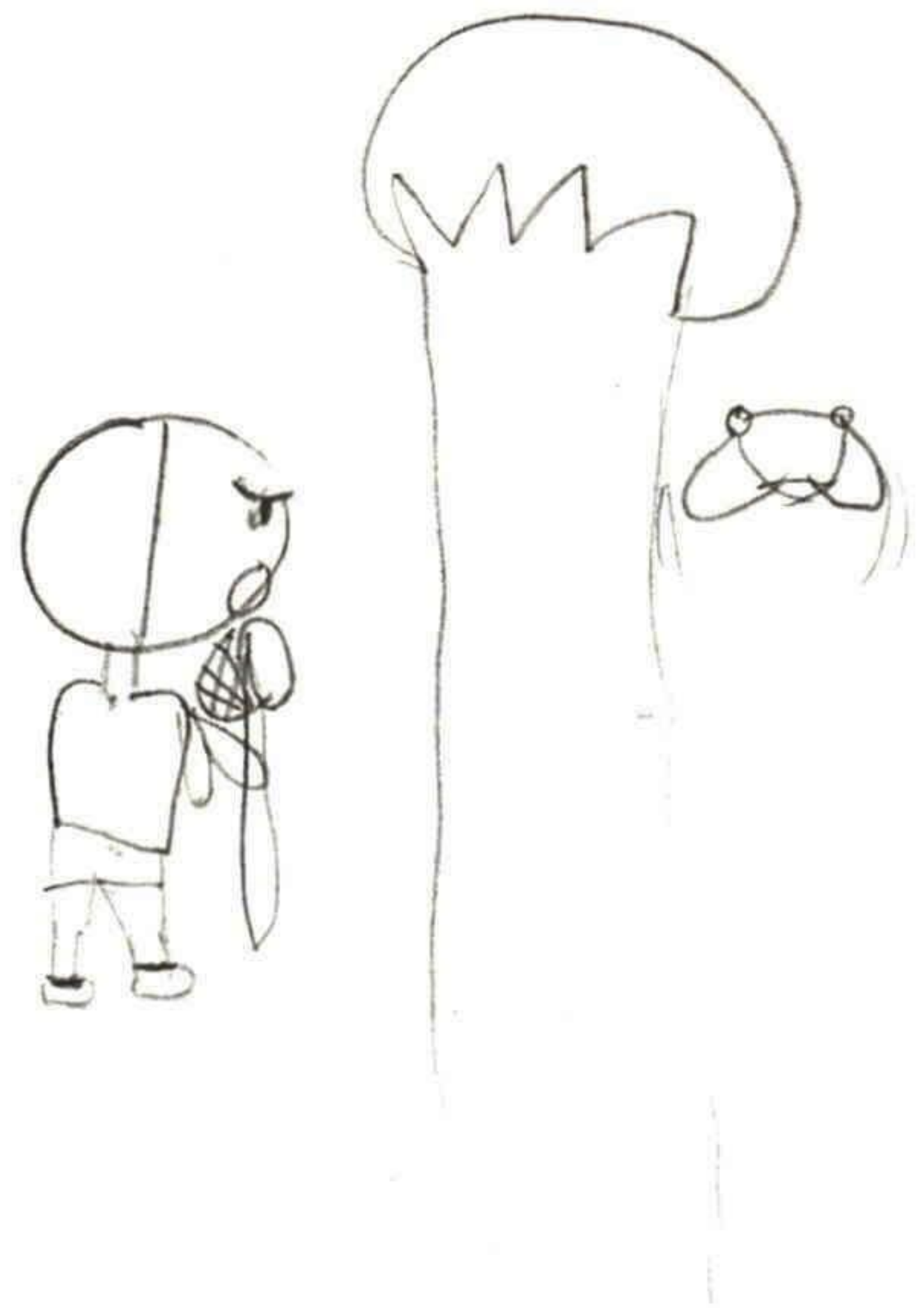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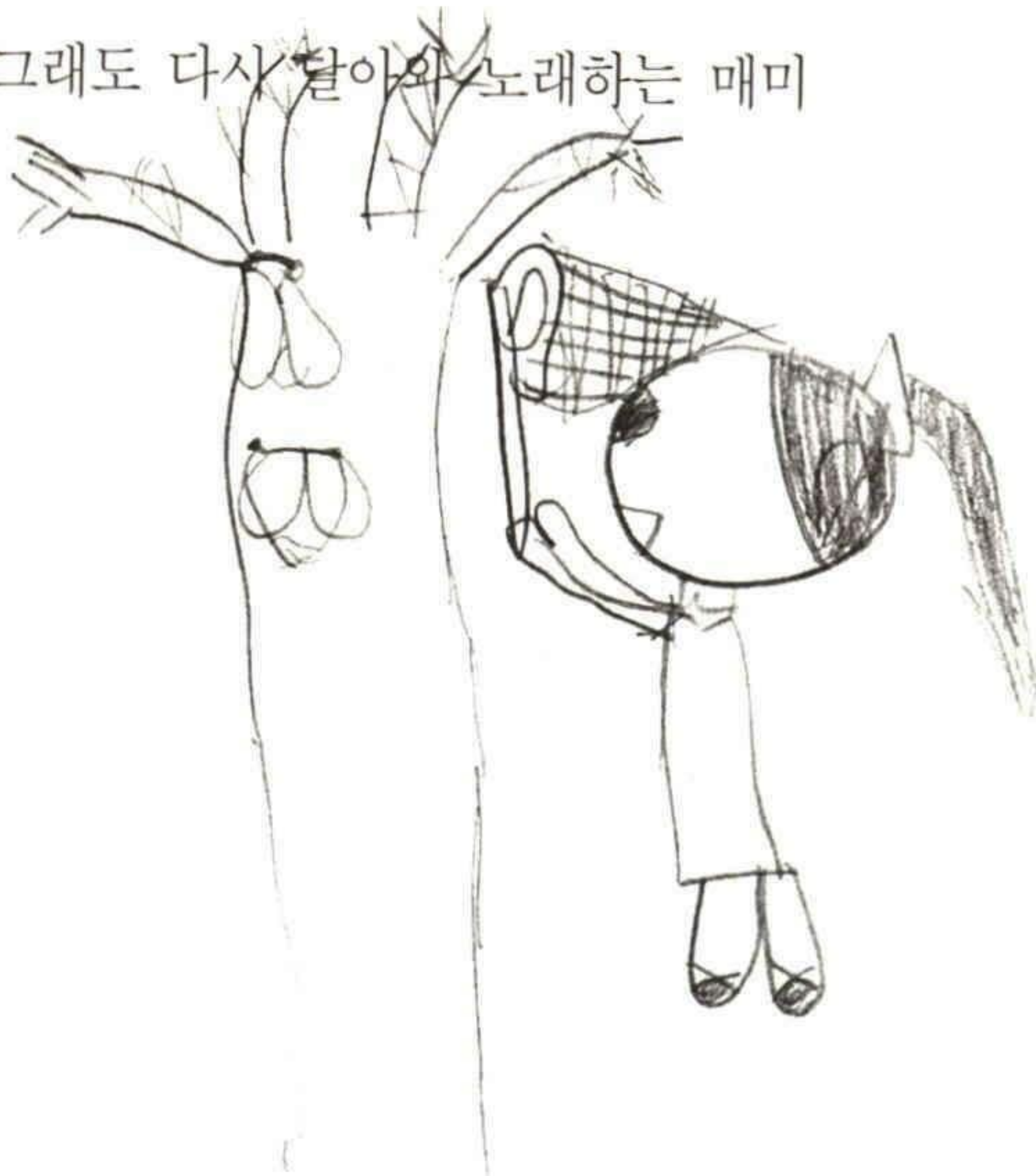


매미



김서한 홍주초등학교 3학년 2반

대문에서 한 걸음씩 나가서
살금살금 뒷걸음치면
키다리 잣나무에 작은 매미가
멤멤 노래 부르네
고것하나 잡으려고
탁~ 쳤더니
푸드득 날아가 버리네
깜짝 놀라 뒤로 넘어 졌네
그래도 다시 달아와 노래하는 매미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상황



김정명 광천고등학교 교사

본교의 상담실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상황에 대하여 설문 실시한 바 있었다. 설문에 따른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에서 학생(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전혀 의식과 생각을 못했던 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며 여러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나 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을 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이다.

이 시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놓여 있어서 역할의 갈등을 겪게 된다. 둘째, 신체적으로 급성장을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를 미처 소화해내지 못해 자기 통제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성적(性的)인 성숙은 이루어졌는데, 그 발산은 억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지식의 변화를 가져와 교재의 내용이 짧은 기간동안 자주 바뀌고, 배워야 할 지식의 양(量)이 급증하는 것 등이다. 이런 모든 요인(要人)이 중·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 이들이 심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성적(成績)이었다. 공부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성적과 능률이 향상되지 않으므로 걱정이 되는 것과 시험불안 등이다. 그리고 부모나 교사들이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것이다. 형제간 비교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다음으로 또래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 사춘기의 예민한 감정은 사소한 일로 흥분하거나 화(禍)를 곧잘 내게 된다. 낯선 관계에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나, 가족관계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원만하게 배우지 못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친구사이 관계에서 서로 교제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접근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또 마음에 들어 친구로 사귀고 싶은데,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몰라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 외롭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불화가 잦은 것과 학교생활의 스트레스다. 학교 선생님들에 대하여 학생 자신이 이해할 수 없거나, 부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의 정착은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사회인들의 솔선수범과 끊임없는 지도(指導)로 이루어지며, 민주시민의 기본 질서를 지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당한 체벌(體罰)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자신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선생님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체벌을 하는 경우이다.

청소년 상담은 문제의 치료와 해결 및 예방을 넘어서서 청소년의 성장까지 상담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청소년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과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청소년 상담에서 청소년의 개인적인 발달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의 제 측면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여 낮추거나 없애는 것이 청소년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는 기능이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성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으로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이 최대한 발현(發顯) 되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의 제 측면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발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동료집단을 중요시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일반적으로 집단은 개인들의 단

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집단이 된다.

집단의 발달 성장과정에서 집단지도자는 집단의 성원을 칭찬·격려·지지(支持)해 줌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집단성원들은 집단 안에서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은 체험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해 가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교육에 대한 불만으로써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인성교육의 부재이다. 고도로 복잡해진 오늘의 삶에서 지식과 기술의 전수(傳授)만을 위해서도 오늘의 학교 교육 자체는 그 힘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창의성·자율성·적극적 자아의식·진정한 자유·책임감·인간존중의 정신·자원봉사활동 등 고도로 도야(陶冶)된 인격 특성을 지닐 것을 모든 개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교육은 인성(人性)을 기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 왔었다. 생활지도는 그 기본 방향에 있어서 자율성, 자아통합, 자유, 책임 등의 인격 특성의 육성을 중요시한다. 현대교육에서도 생활지도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교육을 보는 기본 관점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의 정착은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사회인들의 솔선수범과 끊임없는 지도(指導)로 이루어지며, 민주시민의 기본 질서를 지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구명희 홍성군 홍북면

20일 전에 큰 아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의경으로 갈까, 군 장교로 갈까,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갈까, 2학년을 마치고 갈까, 늘 갈등과 번민 속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대학 2년을 마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등학교를 객지에서 다닌 관계로 5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기에 난, 늘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았었다.

그래서, 나라에 맡기면 훨씬 더 마음이 놓이고 편할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잘 관리해준데도 훨씬 더 불안하고 마음이 영 놓이지 않는 것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데로, 날이 무더우면 무더운 데로, 늘 걱정이 되고 안쓰러웠다.

다른 엄마들은 날 만날 때 마다, 자기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 놓고 처음엔 매일같이 울었었다면서, 얼마나 울었느냐고 물어보기에 바쁘지만 사실 난 그 정도는 아니었다. 늘 떨어져 살아 온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군대라는

곳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멀리 보낸 안타까움과 이제 자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우울하고 슬프게 하기도 했지만, 날마다 일도 손에 붙잡히지 않은 채 울고불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난, 혹시 내가 잘못 된 게 아닐까, 새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문득 문득 들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왜냐하면, 군에 가기 싫어서 버틸 때 까지 버티다가 입대한 아들의 흔적을 발견할 때 마다 공연히 눈물이 났던 것이다.

쓰다가 두고 간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시간아 제발 좀 보채지 마"라는 문자, 훈련소로 고개 푹 숙이고 뛰어 들어 가면서 차 뒷자석에 던져두고 간 집 열쇠, 소포로 부쳐져 온 입고 갔던 옷과 신발, 두고 간 여자친구의 편지와 사진들...

이런 것들과 아울러 아들 생각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새엄마가 아닐까하는 의문에서 자연스럽게 탈출할 수 있었다.

"시간아 제발 보채지 좀 마" 하던 아들은 지금 쫓은 "시간아 뭐 하고 있니? 빨리 좀 가지 않고..." 하면서 오히려 시간을 보채고 있을 것이다.

힘들다고 알려진 곳으로 일부러 자원하여 간 그 녀석은 그곳에서도 더 힘들다는 곳으로 다시 자원하여 갔다. 작년에 새로 생긴 부대라는데 그곳은, 일명 아시아에서 제일 힘든 부대로 소문난 곳이라 한다. 일종의 만용이나 껌기가 아닌, 제 나름대로의 계획과 소신이었음 싶다.

그동안 부모로써 본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후회스럽고, 밤새도록 컴퓨터 한다고 잔소리했던 것도 마음이 아프고,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고 늘 투덜대며 마음 편하게 해 주지 못한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요즘 군대 내무반 폭력이 연일 신문과 인터넷상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걸 보며 정말 많이 걱정도 했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말고는 별로 어려운 줄 모르겠다고 하는 녀석의 편지를 받아 보고 이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고참과 동료들과의 관계도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고참들에게 제법 칭찬도 받고, 동료들과도 아주 재미있게 보내고 있다고 하니 껌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신병훈련 6주가 끝나면 만사를 제쳐 놓고 온 가족이 면회를 가리라 별렀다. 하루에 갔다 올 수도 없는 먼 곳이지만 군복을 입고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로 "충성"하며 우리 앞에 나타날 씩씩하게 변한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런데, 군에서 보내 온 가정 통신문에 의하면, 군

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신병훈련후의 가족 면회가 없어지고 대신 100일 위로휴가를 보내 준다고 하는 게 아닌가?

집 앞 동산의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가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비라도 한바탕 쏟아질 모양이다. 내가 비록 비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들이 빗속에서 어렵게 훈련을 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 이젠 미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들이 군에 입대함으로써 인해 내가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파랑새는 바로 내 가정 내 가족이라는 것이었다. 어린 딸에게 치르치르 미치르의 파랑새 이야기를 해 주면서도 교훈적인 의미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주입시키곤 했는데, 아들을 군에 보내

고 나서야 비로소 그 파랑새가 바로 내 가족, 내 가정이라는 사실이 뜨겁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다.

이제 내가 바라는 소박한 꿈이 있다. 그것은, 우리 아들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면서 국가와 가족의 소중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뜨겁게 느꼈으면 하는 것과, 요즘 아이들의 특징인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가 더불어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도전정신을 배워서, 더욱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림/이업

큰 땅 덩어리,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①

- 중국 여행을 다녀와서 -



정명순 **홍성고등학교 교사**

중국여행을 가신다구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팔자'려니 하세요
그래도? '운명'이려니.....
그래야 여행이 재미있답니다.

위엔화와 약간의 달러를 환전하며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떠도는 얘기로는 한국 돈으로도 충분하다고는 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다. 달러라면 몰라도 원화를? 중국에서의 한국은 어느 정도의 위치일까?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내심 있었던 듯 싶다. 출발 하루 전 지도를 펼쳐보았다. 산서성 서안(시안)에서 호남성 장사(창사)을 거쳐 광서좡 족 자치구에 있는 유주(류저우)을 경유하는 코스인데, 그 곳이 어디쯤인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다. 지도를 펴는 순간 인구수로 이미 사람을 질리게 하는 중국이 이번에는 땅 덩어리로 기를 죽였다. 일단 어디까지가 중국인지 국경선을 표시해보니, 넓다라는 표현이 부족했다. 우리가 여행할 곳은 거의 중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서안에서 중국을 남쪽으로 종단하며 중심부를 여행하는 셈이었다. 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주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이 곳은 아마 미개발 지역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일 것이다. 실제로 서안은 너무나도 유명한 중국의 고도(古都)이고, 장가계와 계림은 빼어난 산수로 인하여 최근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된 곳이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 고추장, 김, 사발면 등 약간의 밑반찬을 마련하며 여행 준비를 끝냈다.

2003년 1월 24일 금요일 8시 30분. 홍성을 출발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5박 6일의 일정이지만, 사실 첫날은 가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소모했다. 2시간 20여 분 만에 서안에 도착하였지만,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장가계에 도착한 시간은 거의 밤 8시30분 경. 안개로

인하여 1시간 정도 연착되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버스로, 다시 비행기로, 다시 버스로…… 지친 하루였다.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연이 되어도 중국인들은 사과 방송도 없고,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 신경을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 하고 동동거리지 않는다. 비가 오는데 어찌란 말이나……. 처음으로 중국인의 사고 방식과 부딪쳤다. 그래! 비가 오는데 어쩔소냐. 제 아무리 비행기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수밖에.

서안 여행은 역사도시이기 때문에 들을 것이 하도 많아 귀가 아프고
북경은 이것 저것 다리품을 파느라 다리가 아프고
계림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느라 목과 눈이 아프고
장가계는 말이 필요 없이 보자마자 '와' 하는 여행이라나요

2003년 1월 25일 토요일. 안개로 비행기가 연착되던 지난 밤의 기억이 불안한 예감으로 다가온 아침을 맞았다. 입을 다물 수 없는 경치로 유명하다는 장가계. 그 아침은 온통 안개비 속에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 우리는 앞 건물도 제대로 안 보이는 호텔을 나서며, 그래도 도착할 즈음에는 안개가 걷히기를 고대했다. "이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깊기 때문에 주로 산적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약 11개의 소수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가(土家)족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에도 마음은 안개처럼 심란스러웠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장가계. 아래에서는 한치 앞도 보이질 않더니, 정상에 오를 즈음엔 서서히 베일이 벗어지며 안개 속으로 기암괴석이 고개를 내밀었다. 안개 속에 솟아있어 높이를 가늠할 수는 없었지만, 마치 신선이 구름 위로 떠오르는 듯 그렇게 우리는 천자산 최고봉에 올랐다. 바위 틈새마다 뿌리를 내린 소나무들이 아프도록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는 곳. 얼마 쯤 후일까? 그 소나무의 뿌리가 튼실해질 무렵이면 바위산은 온통 바스러져 땅이 되겠지. 그래서일까. 소나무들은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는 듯 했다. 오랜 세월 외로운 벼랑 끝에 서서 깨달음의 푸른 미소를 머금은 고승처럼……

“이 곳을 안보면 장가계에 왔다고 할 수 없지요. 안개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가 봅시다.” 다음 코스는 원가계라는 원씨 마을이다. 한참을 산 속으로 파고 들어가 50여분만에 도착한 그 곳도 역시 안개 뿐. 일행은 천하 제일의 절경을 안개 속에 두고, 1000짜리 우산을 들고 계단만 바라보며 걸어 올랐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그 끝에서 느끼는 아찔함 같은 것은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간간히 안개가 희미하게 걷히는 곳에서 잔 맛을 보았다. 천하제일교,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아찔한 다리를 건널 때에도 우리는 아래가 보이지 않으므로 두렵지 않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절경도 안개 속에서 아무 것도 보여줄 수 없구나, 진흙 속의 진주처럼……. 문득, ‘나 역시 안개처럼 희미하여 나를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저 봉우리가 안보인다고 답답해 하지만, 저 봉우리는 내가 안보여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 서로 안개 탕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제법 철학적인 생각을 뱅뱅 돌리며 걸었다. 게다가 이 곳은 오랜 옛날 바다 속에 있던 지형이 융기하면서 생긴 곳이라 하니, 아마 태초에 바다 속에서 꿈틀거리며

땅이 솟을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특별한 곳엔 언제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가 있다면 이러했을까? '천하제 일교'라는 다리는 천길 낭떠러지를 밑에 두고 봉우리와 봉우리를 잇는 아찔한 다리이다. 다리 구석 구석에 자물쇠가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런 절경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갖가지 소원을 자물쇠에 담아 다리 난간에 굳게 채운 뒤 열쇠를 천길 아래로 던져버린다는 것이다. 굳은 약속과 소망이 녹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후 5시가 다되어 하산을 했다. 뻑뻑한 일정의 피로로 다리가 무거웠다. 마지막 코스에 중국의 발맛사지를 넣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본인들이 때밀이 관광을 온다는데…….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중국. 빈부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과도기에 예전 우리의 언니들, 오빠들 같은 발맛사지사들을 보니 가난했던 지난 시절이 가슴 짠하게 떠올랐다.

2003년 1월 26일 일요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려니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항상 여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 생각은 하면서도 단체여행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일정이 일단 나와있으면 최대한 그 일정을 즐겁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듯 싶다. 7시 30분, 우리는 호텔을 나와 첩첩산중에 위치한 비봉 호수를 찾았다.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산 사이로 초록빛 호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 곳에 살고있는 토가족은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서로 주고받는다. 새소리처럼 청아한 목소리로 호숫가에서 한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노래가 산에 부딪치고 호수를 맴돌아 그녀의 귓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받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호수를 떠다니면서, 난 하늘이 참 작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광활한 대지와 하늘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9시가 넘어서 황룡동굴로 이동을 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이곳은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한다. 그래서인지 기와가 우리의 것과 달랐다. 훨씬 얇고 작다. 그 이유는 습기가 많아서 잠깐 해가 나오면 빨리 마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두꺼운 기와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단다. 또한 이곳의 명물 중에 하나가 빨래를 밖에다 널어놓는 것인데, 이 또한 습기 때문이다. 실내에 빨래를 넣어 놓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해가 나오는 듯만 하면 빨리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빨간 속옷들까지 창문 밖에서 펼쳐있다. 마치 거리가 만국기를 걸어놓은 듯 하다. '뭐가 챙피해? 해가 나와서 빨래를 말리는데. 속옷은 옷 아닌가?' 중국인의 사고방식이다.

황룡동굴은 약 15km에 달하는 석회동굴로 용왕이 산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강원도의 고수동굴을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역시 중국은 동굴도 크구나 싶을 것이다. 뭐하나 안 큰 것이 없을 정도다. 며칠이 지나면 크다는 것이 질리고, 우리의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강산이 그리워 지지만……. 이러저러한 모양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나라 중국이나 똑 같았다. 용왕의 눈을 피해 데이트를 나간 남녀의 상, 용왕의 의자며 침실이며 왕관까지,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동굴을 나오니 눈발까지 날리고 있었다. 장가계에서 눈을 구경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일인데, 기가 막히게도 눈이 내렸다. 우린 질리게 본 눈이라 좀 따뜻한 곳에서 지낼 것이라는 기대가 여지없이 깨지면서 옷깃을 여미는데, 그 곳 사람들은 강아지들처럼 좋아하고 있었다. 갓 피어난 국화에 눈꽃이 덮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폭죽소리도 들린다. 이들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폭죽을 터뜨린다고 한다. 더구나 29일이 설날이라서 그런지 명절 분위기가 제법 나고 있었다. 개업을 하거나 설이 되거나 귀신을 쫓거나,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폭죽을 터뜨린다. 죽음을 축하하는 것이다. 돌아가는 길.

여러분도 중국에 가면 신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막무가내로 걷고

차는 정신 없이 달리고

10년 무사고이면 신선이 된답니다

오후가 되어 기차역에 도착했다. 장가계에서 계림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철도를 이용해야하는데 장장 13시간의 밤 기차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아름다운 풍경, 영화 <해바라기>에서 밖으로 펼쳐지던 아름답고 낭만적인 기차 여행,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침대 칸이 있다니, 기대만으로도 마음이 부풀고 있었다. 넓은 창과 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꿈은 꿈으로 있을 때 아름답다. 처음부터 아예 꿈을 깨고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그건 낭만이 아니라 고행이기 때문이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중국도 역시 일반적으로 가는 출구와 특별석으로 가는 출구가 나뉘어 있었다. 표를 확인하고 대기실로 들여보내더니 문을 잠그는 것이다. 화장실에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통하지도 않는 한국말로 애원을 해도 담당자는 상관하지 않고 가버린다. 결국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일행 한 명이 합류할 수 있었다.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기차를 타자마자 벌어졌다. 구정이 다가오자 국가가 일방적으로 객실 한 칸을 가져가 버렸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예약한 여행객들이 2등 칸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옥신각신 시끄러워진 것이다. ‘그렇게 됐다면 그런 것이지 뭘 따지냐? 참 이상한 한국인이네. 여긴 중국이야…….’ 중국의 또 한 모습. 중국인들은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듯 싶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 표정은 굳어있고 쌀쌀한 찬바람이 돈다. 아마 중국어의 억양 탓도 있을 것이다. 9시에 출근해서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 그리고 6시까지 근무한다. 6시간 근무인 셈이다. 점심시간이면 철저하게 쉰다고 한다. 점심시간인데, 왜 일을 해야하지? 바로 그거다. 그러나 최근에 자본주의 경제가 자리잡으면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성향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밖으로는 한없이 넓은 대륙이 끊임없이 줄을 잇고 있었고, 가끔씩 역에 머물 때마다 몇 사람 보일 뿐. 난방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 잠바에 모자에 목도리까지 둘러서 아이들을 재웠으나 밤새 잠이 들 수가 없었다. “커피- 커피-” 역원의 소리가 구세주처럼 들려왔다. 1000원 짜리 커피 한 잔. 시계 초침처럼 한 밤을 온통 떨기만 했다.◇



생활의 지혜

【두부를 보관할 때는】

- ☞ 가정에서 요리에 쓰고 남은 두부를 보관할 때는 그냥 물에 담아 냉장고의 냉장실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관한 두부는 나중에 쓰려고 보면 표면이 미끈거리고 냄새가 나버리기 일쑤이다. 두부를 물에 넣은 상태에서 냉장 보관할 때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된다. 또는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냉장실에 넣어두면 두부를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피지 제거법】

- ☞ 흑설탕과 꿀을 2:1비율로 섞어서 설탕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5분정도 마사지를 한다. 각질제거뿐 아니라 코 모공의 피지가 속 빠진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 화장솜에 스킨을 듬뿍 적셔 5분정도 코에 얹어두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밥 지으면서 달걀 삶는 법】

- ☞ 전기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알루미늄호일로 단단히 싸 달걀을 같이 넣으면 밥을 지으면서 달걀을 삶을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도 좋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전화할 때】

- ☞ 도로변이나 소음이 심한 곳에서 전화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쪽 귀를 막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신의 송화기를 막고 통화를 해보자. 아마 상대방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누렇게 변한 흰색가구는】

- ☞ 흰색가구가 누렇게 일반세제로 닦으면 색이 더 누렇게 변할 수 있다. 이럴때는 부드러운 헝겊에 치약을 묻혀 페인트 칠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문질러 닦으면 원래의 흰색이 되살아난다.

【폴물 얼룩은 알코올이나 암모니아수로】

- ☞ 야외 활동을 하다보면 옷에 폴물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땐 약국에서 알코올이나 암모니아수를 사다가 헝겊에 적셔서 폴물 얼룩을 몇 번 두드린 뒤에 비눗물로 세탁한다. 거짓말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 편 집 부 -

표지사진 작가

조 철 행



- 한국사진협회 회원
- 홍성사진동우회 회원

표지사진 설명

▷ 표지사진 : 『홍성읍성』

홍주읍성은 성곽을 쌓은 연도는 알수 없으나, 최초로 성의 주위가 1,300척의 토성으로 성첩이 400개의 성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종 7년 경오년(1870)에 홍주목사 한응필이 동·서·북 세곳에 문을 다시 세우고 남문은 홍예문으로 세웠다. 경오년 2월 27일에 준공한 다음 조정에 보고하여 동년 10월 15일에 대원군이 휘호한 문액을 받았는데 동문은 조양문(朝陽門), 서문은 경의문(景義門), 북문은 망화문(望華門)으로 명명하였다.

홍주성은 주위가 최장 1,772m의 규모였으나 많은 구간이 일본인들에 의해 훼손되고 810m의 구간만이 남아있으며, 성내에 있던 관아의 건물이 35동에 이르렀으나 그중 조양문, 홍주아문, 동헌, 여하정 등 4동의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며 홍성읍 오관리에 위치하고 있다.

편집후기

여름입니다. 여름하면 장마와 더위가 생각나는데 매년 장마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는 수해민들에게는 힘겨운 계절이기도 하다.

나와 내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민간인과 기관이 세심하게 방지작업준비를 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재해는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만큼 재해기간을 정하는 것보다 꾸준히 주위를 둘러보고, 기초를 튼튼히 하기바란다.

홍성문화

2003. 여름

발행인 이 하 영

편집인 정 재 범

발행일 2003년 6월

발행처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TEL.(041) 632-3613, 634-9659

1989. 11. 23 등록번호 충남바01100

인쇄처 조양인쇄사(TEL : 041-632-2363)

홍성문화원 회원모집 안내

■ 회원모집 취지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홍성문화원이 새롭게 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홍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저희 홍성문화원과 함께 하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가입에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주민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혜택

- 문화원발행 정기간행물 배부
- 문화원개최 행사에 초청
- 문화원 보유자료 열람 및 대관

■ 회원가입

- 문화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1년회비 : 20,000원

■ 문의사항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2-13 (우:350-807)
- 전 화 : (041) 632-3613, 634-9659
- FAX : (041) 633-1199

○ 홍성문화원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참여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

저희 홍성문화원은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홍성의 미래를 의식하며 더 밝은 홍성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문화창출의 산실로 꾸려가려 합니다

**한문교실, 닥종이인형교실, 서예교실, 주부노래교실,
내고장역사교실, 전통문화사진교실**

알찬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쾌적한 교육공간에서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 강 좌 안 내 ▶

구분 요일별	프 로 그 램	시 간	과 정	내 용	회 비
화	한문교실 (1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기 초 생 활 한 자 교 육 및 명 심 보 감 강 의	15,000원
화, 목	닥종이인형교실 (1층)	오 전 10시~12시	3개월과정	종 이 를 이 용 한 인 형 박 품 만 들 기	20,000원
수	서예교실 (2층)	오 후 2시~4시	9개월과정	서 예 기 본 부 터 배 우 기	15,000원
	주부노래교실 (2층)	오 후 2시~4시	년중	가 곡, 국 내 가 요, 외 국 가 요 등 노 래 배 우 기	15,000원
목	전통문화사진교실 (1층)	오 후 7시~8시	3개월과정	우 리 문 화 재 사 진 찍 는 기 본 배 우 기	15,000원
	내고장역사교실	오 후 2시~4시	3개월과정	우 리 고 장 의 문 화 역 사 배 우 기 및 현 장 학 습	15,000원

- 점 수 : 수시접수
- 장 소 : 홍성문화원 문화사랑방
- 문 의 처 : 홍성문화원 사무국 (☎ 632-3613, 634-9659)
- ※ 개강일시는 강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은 항상 여러분과 가깝게 있습니다 ○

으름덩굴

<개화기 : 4~8월, 결실기 : 10월, 용도 : 뿌리·가지는 약용, 열매는 식용, 줄기는 바구니 재료>



으름덩굴

황해도 이남에 나는 낙엽 덩굴나무. 길이 5m, 잎은 손바닥 모양의 겹잎, 작은 잎은 5장, 난형 또는 타원형, 밑이 뾰족하고, 끝은 약간 오목하며, 가장자리는 밋밋함.

꽃은 암수 한그루, 총상화서, 단성화, 암자색, 잎겨랑이에서 나뭇, 수꽃은 작고 많이 달리며, 수술은 6개, 암꽃은 크고 적게 달림. 꽃받침은 3장, 열매는 육질의 삭과, 긴 타원형, 암자색, 염색체수 $2n=32$

- 꽃의 색은 변화가 많음.